


리아호나



아버지가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법, 4, 10쪽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일본에서의
전임 선교사, 감리 감독, 그리고
새로운 사도, 14쪽

물문경이 어떻게 영적인 시야를
회복하는가, 20쪽

사후의 삶에 대한 1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32쪽



“그들은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그들을 이끌되, 물이 솟는 샘가로 그들을 인도할 것임이니라.”

나파이전서 21:10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다이어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성전 의식과 성약

특집 기사

- 14 캐리 이 스티븐슨 장로:
이해심의 소유자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스티븐슨 장로는 영의 속삭임과
구주의 속죄로 인한 축복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교회의
능력 또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이해를 통해 마음으로
봉사한다.
- 20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린 지 로빈스 장로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증인이다.

26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 친절한 기적
에프렘 스미스
보잘것없는 고아로 태어나서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기까지,
내 인생 여정은 문자 그대로
기적이었다.

28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침
엘리샤 스탠턴 및 나탈리 캠벨
월별 청소년 주제를 가족이 함께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32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회복된 복음의 명백하고 귀중한
진리가 있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질문에
답해줄 수 있다.

36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
에드워드 듀브 장로
우리 딸이 아프게 되었을 때,
나는 얼마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내 마음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교회 본부 기사

- 8 우리의 믿음: 우리는 선지자를
따라야 함을 믿는다.
- 10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아버지가 보여 주신 사랑의 모범
익명
- 12 음악: 그분께 오라
테오도르 이 커티스 및
휴 더블유 도우걸
- 40 단상: 만세!
지 크레이그 카이저
- 41 교회에서 봉사하며
내가 봉사하는 동안은 안 돼!
브렛 제이 포터
- 42 후기 성도의 소리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간증은
무엇이며, 왜,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가?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

표지
앞: 사진: 코디 벨
앞표지 안쪽 사진: iStock/Thinkstock
뒤표지 안쪽 사진: 레슬리 닐슨



46

46 끈기와 제자로서의 길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구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진정으로 선한 목표들을 이루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50 안식일의 승리자들

사만사 맥패디엔
일요일에 경기를 함으로써 전국 챔피언에 도전하거나, 아니면 경기를 포기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나, 선택은 우리의 몫이었다.

52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

웬디 올리히 박사
여러분은 물론경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을 읽어 보았다. 그러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법, 그리고 거절당할 때 이를 감당하는 법은 알고 있는가? 선교사가 되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다른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자.

57 우리들 공간

58 선교부 임지로부터: 울부짖는 영혼

스티븐 덕데일
그는 적대적이고, 다가가기 힘들며, 무서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진정 그는 영원한 관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한 영혼일 뿐이었다.

61 교회 지도자들의 답변:

선교사를 돕는 방법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62 질의응답

제 부모님은 상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부적절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서 영을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일요일에 말입니다.

64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데이비드 모랄레스
우리는 모두 친구를 원한다. 여기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76

66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

의를 위해 설 거예요
에이샤 탠

68 조던의 공부 친구

쿠스틴 아이디
조던은 물론경 공부 친구 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70 하나님의 전신 갑주

여러분의 영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72 사도들의 답변: 침례받을 때 우리는 어떤 성약을 맺나요?

닐 엘 앤더슨 장로


73 우리들 이야기

74 물론경의 영웅들: 에이비시는 선교사였어요

75 나는 물론경을 읽을 수 있어요

76 물론경 이야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엘마

79 색칠하기: 나는 경건할 수 있어요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 보세요.
힌트: 여러분은 어디서 기도할 수 있나요?

52



2016년 6월호, 제53권 제6호

리아호나 13286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도르프

심사도 정회원: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욱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랜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날 앤 엘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던

편집인: 조셉 더블유 시타티

부편집인: 제임스 비 마르티노, 캐럴 에프 맥공키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튼, 랜달 케이 베네트, 크레이그 에이 카돈,

첼셀 에이 에스플린, 크리스토퍼 골든, 더글라스 디 홈스, 래리 알

로렌스, 캐롤 엠 스티븐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와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스

비즈니스 관리자: 가프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매간 베르호프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애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질 크리스틴 해킹, 살렛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민디 앤 셸루, 폴 벤덴버그, 머리사 윌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대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맨디 엠 벤틀리, 시 킴볼 보드,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클린 힐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무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를 워너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코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앤 피터슨

제작 팀: 콘니 바소프 브러지, 줄리 버넷, 캐티 던컨,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비, 지니 케이 날슨, 가일 타테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치위크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텐슨

미국, 캐나다 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서, 또는 현지의 교회 배부 센터, 혹은 와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를 신청하거나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동권: 제603호, 제53권, 제6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6년 6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구로 자하문로 152

인쇄: 한국출판정보(주) 채종준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6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와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pyright@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June 2016 Vol. 40 No. 6.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이 실려 있다. 다음은 가정의 밤에 활용할 만한 두 가지 아이디어다.



“우리의 믿음”, 8쪽: 이 기사는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를 지지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간증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연차 대회 말씀을 듣거나 읽으면서 선지자에 관한 간증을 키울 수 있다. 가족과 함께 몬슨 회장이 최근에 전한 말씀들을 읽고, 몬슨 회장이 생활의 지침으로 삼도록 권고한 구체적인 말씀을 골라 본다. 선지자의 권고대로 생활하며 어떻게 축복받고 있는지 인식하려고 노력한다.

“날 따르라: 가정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들”, 28쪽: 스펜서 더블유 킴블(1895~1985) 회장은, “우리의 성공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로나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라고 가르쳤다.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 *날 따르라*의 주제 한 가지를 공부해 본다. 매주 선택한 주제의 여러 관점을 공부하면서 경전을 비롯하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LDS.org, 경전 안내서, *성경 비디오—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다른 학습 보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매주 가정의 밤에서 자신이 배우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도 좋다. 학습 일지에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고, 배운 내용을 소셜 미디어로 친구들과 공유해 본다.

인터넷 활용하기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는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facebook.com/liahona.magazine 에 가서 영감에 찬 메시지, 가정의 밤 제언, 그리고 친구 및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페이스북 페이지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만 제공됩니다.]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르침, 28, 43
- 가족, 10, 28, 36, 43, 44, 62
- 간증, 80
- 개종, 36
- 결혼, 28
- 겸손, 52
- 경건, 79
- 구원의 계획, 32, 58
- 기도, 12, 58, 61, 66, 76
- 기적, 26
- 끈기, 46
- 목표, 46

- 몰몬경, 20, 57, 68, 74, 75
- 봉사, 41
- 선교 사업, 52, 58, 61, 74
- 선지자, 8, 42, 44
- 성경, 20
- 성약, 7, 28, 72
- 성전 사업, 7
- 성전, 44, 73
- 성찬, 40
- 속죄, 36
- 순종, 8, 28, 70
- 신앙, 36, 46, 75

- 아론 신권, 41
- 아버지의 본분, 4, 10
- 안식일, 45, 50, 62
- 예수 그리스도, 12, 28, 40
- 우정, 64
- 의식, 7, 28
- 자립, 28
- 제자 됨, 46
- 청소년, 41
- 침례, 72, 73
- 태도, 52
- 하나님 아버지, 4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여러분은 부품 상자를 열고 조립 설명서를 꺼낸 다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걸.”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은 좋은 의도와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꺼내 들고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뭣에 쓰는 거지?” “이걸 어떻게 맞추지?”

상자를 들여다보다가 “조립품 - 사용 연령 8세 이상”과 같은 안내문을 보노라면 좌절감은 더 커집니다. 조립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하기에, 자신감이나 자부심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때로 복음과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복음의 일부분을 바라보다가 머리를 긁적이며 그 부분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궁금해하고, 아니면 다른 부분을 살펴다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쓴 후에도 그 부분이 왜 포함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다행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삶을 조직하고 최선의 자아를 확립하도록 훌륭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런 지침은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속의 계획, 구원의 계획, 곧 행복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 행운을 빈다. 잘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생의 온갖 불확실성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만 인내심을 지니고 겸손한 가슴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위한 포괄적인

지침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여러 도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그분은 우리에게 값어치 없는 성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우리 생각과 행동을 그분의 말씀에 일치시키고자 한다면, 그 은사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분은 우리가 신앙의 기도와 진정한 의도로 간청하면 언제든지 그분과 교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그분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지상과 하늘에서 매거나 인봉할 권세를 지닌 현대의 사도와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셨으며,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 비할 데 없는 기쁨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서로 돕기 위해 함께 일하는, 믿는 자들의 조직입니다.¹
- 그분은 우리에게 글로 된 말씀인 거룩한 경전을 주셨습니다.
- 그분은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를 돕고자 현대의 기술로 이루어진 수많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이런 경이로운 도구 중 다수를 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도울 방안을 왜 그토록 많이 마련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²

달리 말씀드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의 필요 사랑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분께로 돌아가는 길을 걷는 우리에게 놀라운 현세적, 영적 자원을 제공하시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요 영광입니다.

모든 아버지는 인도자입니다

세상의 몇몇 지역에서는 6월이 되면 가족과 사회가 아버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제나 훌륭한 일입니다. 아버지들은 가족을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존경받을 만한 성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삶에서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두 가지는 훌륭한 본이 되고 훌륭한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옳거나 그른 것을 알려 주는 일 이상을 합니다. 자녀에게 설명서를 하나 던져 주고 스스로 삶을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아버지는 소중한 자녀에게 인도자가 되어 주고, 정직한 삶을 사는 법을 자신의 선한 모범으로 보여 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자녀가 비틀거리며 도움을 청할 때는 서둘러 달려가 부축해 줍니다. 때로는,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느낀 순간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그런 순간들이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조언과 인도를 받았던 순간과 어떻게 비슷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인도를 받는 과정에서 그 둘 사이의 유사점들을 적어 보라고 한다. 그들이 적은 내용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과 인도를 베풀고자 노력함으로써 더 훌륭한 모범이 되려고 힘쓰라는 목표를 준다.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면, 아버지는 자녀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겪도록 허락합니다. 시련을 겪도록 두는 것이 자녀가 배우고 성장하는 가장 좋은 길일 수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도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이끌고 인도하지만, 우리는 한편 나이와 장소, 또는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영적 인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나없이 같은 영원한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모두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도록 손을 뻗어 서로 돕기를 갈망하는 인도자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므로, 우리에게는 그분처럼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늘 부모의 면전에서 돌아가는, 끈고 좁으며, 기쁨이 넘치는 길입니다.

우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쓰신다면, 우리도 피부색, 인종, 사회 경제적 상황, 언어, 또는 종교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감 어린 인도자가 되어 다른 이들, 곧 우리의 자녀뿐 아니라 세상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삶에 축복을 베풀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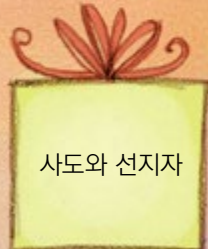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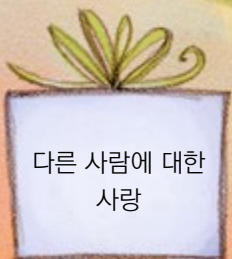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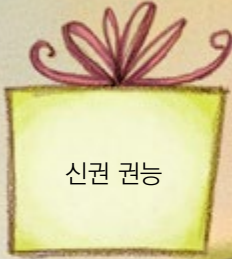
주

1. 사도행전 13:52; 빌립보서 2:12 참조.
2. 모세서 1:39.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

하 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도우시고자 여러 가지 도구, 곧 선물을 주셨어요. 아래에 있는 각 선물 상자를 그림과 짝지어 보세요. 이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무엇을 나눌지 알기 위해 간구한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을 키우고 여러분의 방문 교육을 통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ids.org에서 알아볼 수 있다.



신앙, 가족, 구제

이야기에서

2007년, 페루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난 나흘 뒤, 칠십인 정원회의 마커스 비 내쉬 장로는 웬체슬라오 콘드 지부 회장과 그의 아내 파멜라 자매를 만났다. “내쉬 장로가 콘드 자매에게 아이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모두들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은 어떠한 질문에

그녀는 간단히 ‘사라졌어요.’라고 말했습니다. ... 내쉬 장로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고 계시군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기도를 드렸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인봉 받았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도 있고, 주님도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짓게 하고, 역경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맺은 성약을 통해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⁴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충만한 복음을 받으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³

보충 성구

니파이전서 14:14; 교리와 성약 25:13; 97:8; 109:22

주
1. 린다 케이 버튼, “성약을 지킴으로써 오는 힘과 기쁨, 그리고 사랑”,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111쪽.
2. 닐 엘 앤더슨, “신권 권능”,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92쪽.
3. 엠 러셀 벨라드, “주님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리아호나*, 2014년 4월호, 48~49쪽.
4.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성약의 권능”,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9~20쪽 참조.

성전 의식과 성약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모든 의식에는 하나님과 맺는 성약이 따른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케이 버튼 자매는 이렇게 말씀했다.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결속시키는 것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¹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은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고, 정기적으로 성찬을 취하는 모든 합당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남성과 여성이 성전에 가면 둘 다 같은 권능인 신권 권능으로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

모든 남녀는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이 권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이를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천사의 성역으로 축복받으며,

생각해 볼 점

성전 의식과 성약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가?

우리는 선지자를 따라야 함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멸의 성역 기간에 세우셨던 초대 교회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에베소서 2:20) 교회의 회장과 그분의 보좌들, 그리고 열두 명의 사도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전 세계에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는다.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이 여러 경험을 통해 교회를 인도할 준비를 갖추게 하신다. 교회 회원이 선지자라고 말할 때에는 지상에서 유일하게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 회장을 일컫는 것이다.

교회 회장은 주님을 대신하여 말씀하기 때문에(교리와 성약 1:38 참조), 그의 가르침 중 따르고 싶은 부분만을 골라 선택하는 것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 그보다는, 그의 권고와 권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받은 것처럼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교리와 성약 21:5) 받아들여야 한다.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로 결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우리의 노력에는 축복이 더해지고 우리는 세상의 위험과 속임수로부터 보호를 받는다.(에베소서 4:11~12 참조)

예를 들어, 선지자와 사도들이 가르치는 불변의 표준에 따라 생활하면, 도덕관 및 가치관이 변해 가는 세상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안전을 얻게 된다. 또한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 부채를 피하고 저축을 하며 식량을 저장해 둬으로써 우리는 현세적인 안전도 얻게 된다.

교회 회장과 사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간증하고, 성도를 가르치고, 또 전 세계의 교회 운영을 두루 살피는 등 주님의 사업에 자신의 삶을 바칠 때, 주님께서는 그들과 그 가족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우리가 교회 회장과 사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권고에 순종할 때, 또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참됨을 확인해 주시기를 성신께 간구드릴 때, 우리도 그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지지할 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간증을 얻는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신명기 18:18~20 참조) ■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러셀 엠 넬슨 회장의 “선지자를 지지하며”(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4~76쪽)를 읽으면 선지자를 따르는 것에 대해 더 배울 수 있다.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한 인도



“하나님께서서는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시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전 세계에 있는 당신의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2015), 115쪽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36년 대공황 시기에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1856~1945)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오늘날 이 프로그램은 종교와 상관없이 전 세계 사람들을 돕고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1805~1844)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물문경을
 번역하였다.(물문경 소개
 참조) 1830년에 출판된 이후,
 물문경은 수백만 명의 인생에
 축복이 되었다.



1998년 4월, 당시 교회에는 51개의 성전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고든 비 핑클리 회장(1910~2008)은 다수의 소규모 성전 건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러한 성전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점점 더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축복이 되고 있다.



1915년에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 (1838~1918)과 그의 보좌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가정의 밤을 시작하라고 권고하였다. 가정의 밤을 하는 가족에게 큰 축복이 임하리라는 선지자의 약속은 지금도 실현되고 있다.



2012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선교사 봉사 연령을 남자는 18세, 여자는 19세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선교사 수가 증가하여 수천 명의 가족과 선교사가 축복을 받고 있다.

아버지가 보여 주신 사랑의 모범

익명

아버지는 나에게 방황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세미나리에 참석해 보라는 두 친구의 권유를 받아들인 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내가 침례를 받고, 선교 사업을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때마다 부모님은 항상 나를 지지해 주셨다. 하지만, 나와 아내가 인봉되는 동안 유타 프로보 성전의 대기실에서 친절하게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난다.(부모님도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네 자녀를 얻었고, 모두 성약 안에 태어난 덕에 한 명 한 명이 우리에게 인봉되어 있음을 생각하며 우리는 참 기뻐했었다. 우리 자녀들은 첫 번째 손주들이었고, 부모님과 형제들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모두 내 자녀 한 명 한 명과 가까이 지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서로 가까운 곳에 살았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청소년들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수 있었다. 두 분은 우리 자녀 침례식에도 다 참석하셨다.

그러나 아이들이 십 대에 이르자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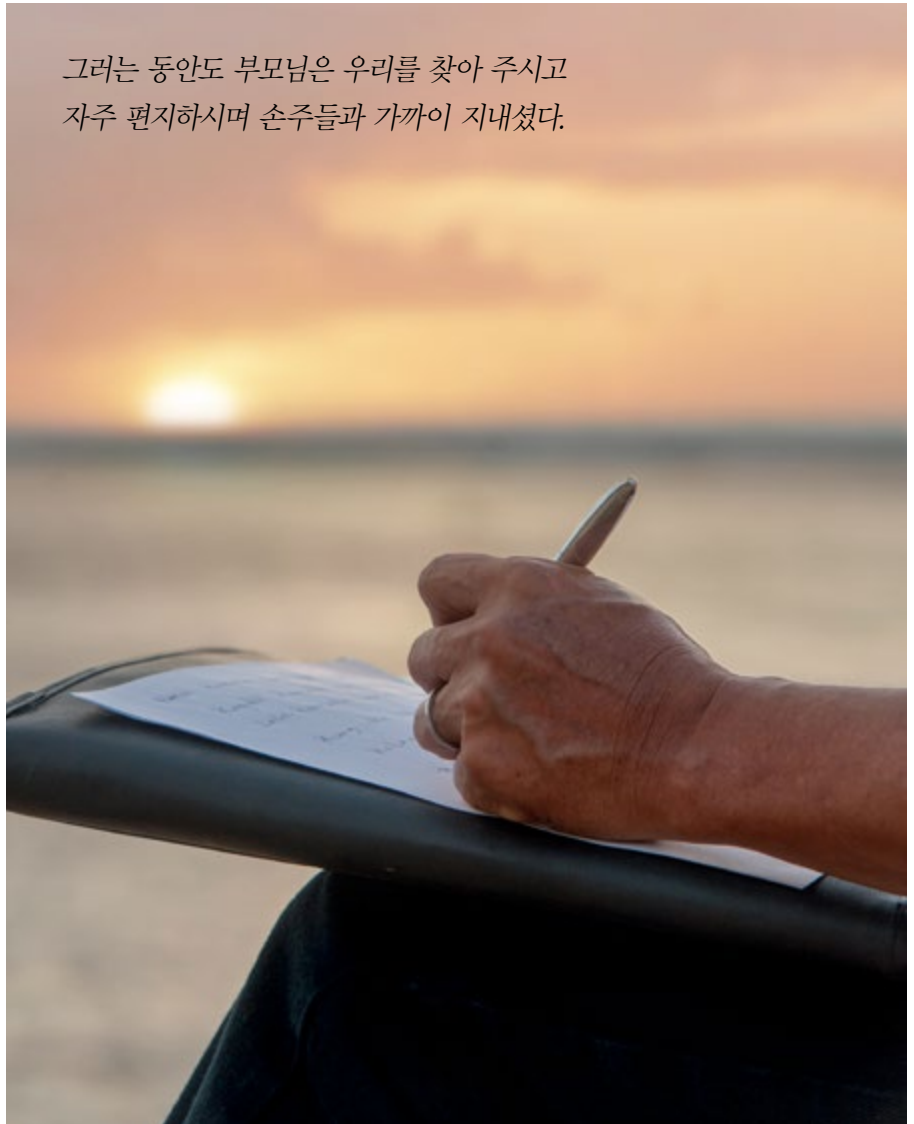
가족은 내 직장 문제로 다른 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부모님은 우리를 찾아 주시고 자주 편지하시며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셨다.

부모님이 중년기에 이르실 무렵, 어머니는 때 이르게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종일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도 어머니를 충실히 돌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셨다. 인생의 후반부를 이렇게 보내시면서도 아버지는 매주, 그리고 어떤 때는 매일 전화와 편지로 나와 연락을 주고받으셨다. 나는



그러는 동안도 부모님은 우리를 찾아 주시고
자주 편지하시며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셨다.



항상 부모님 두 분과 가깝게 지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우리는 특히 더 가까워졌다. 그 뒤, 나는 아버지가 내 세 형제들과도, 내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가까이 지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관심사가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졌음에도 말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 우리 가족과 부모님은 정반대 지역인 미국 동부와 서부에 살았다. 어머니의 치매가 악화되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간호하며 장시간 비행을 하기에는 무리인 형편에서도 두 분은 두 번이나 끝에서 끝으로 우리를 보러 오셨다.

이 시기에 우리 네 자녀들은 하나, 둘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두 아이는 결국 교회 기록에서 이름을 삭제했다. 이 일은 분명 나와 아내에게 시련이었다. 아버지는 후기 성도가 아니시면서도 손주들의 결정에 똑같이 마음 아파하시고 혼란스러워하셨다. 아버지는 개인적으로 종교적인 분이셨고, 여러 해 동안 우리와 더불어 손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

아버지는 2005년에 암 선고를 받고 돌아가셨고, 3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두 분이 돌아가신 뒤 아내와 나는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의 대리인으로서 성전 의식을 받았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성인이 되었고, 일부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자녀도 있다. 하지만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 중 후기 성도는 한 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알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었다. 우리는 네 자녀를 모두 친밀하게 느끼며, 아이들이 우리에게 자주 사랑으로 다가와 주어 감사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할 수 있다면 내

남은 평생 동안 성인이 된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매우 명확한 답을 받았다. 바로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대로 해야 했던 것이다. 내 자녀들이 내가 택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삶과 믿음을 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힘겨워하는 동안, 아버지는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흔들림 없이 내 곁에 가까이 계셨다. 비록 아버지와 나는 다른 삶을 살았고 종교적 관점이 달랐지만 말이다. 나는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야 함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신앙이 다른 자녀들을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구주께서 그러시듯이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

그분께 오라

작사: 테오도르 이 커티스
작곡: 휴 더블유 도우걸

사려 깊게 ♩ = 80-92

1. 고 요 하 고 고 독 한 밤
2. 나 간 절 한 소 망 있 어
3. 그 어 면 일 이 닥 치 든

별 주 어 빛 님 편 속 께 위 흘 구 험 로 하 에 거 었 처 닐 더 하 다 니 든

주 기 주 님 적 님 임 과 내 재 표 방 하 적 패 심 없 되 느 으 시 께 나 며

무 주 내 름 님 피 꿀 의 난 고 위 처 기 안 돼 도 받 주 했 았 시 네 네 네



주사 죄 님나 가 의운운 응폭 데 답풍 낙 받우 담 으일 하 니고 고

내 불 절 모 잡 망 든 아 속 짐 줄 에 사 팔 지 라 없 친 지 으 영 고 나 혼

고 그 평 통 분 안 속 께 과 에 모 씬 신 두 언 음 말 으 하 길 리 던 때 니

내 모 그 마 든 분 음 풍 께, 기 랑 그 뽐 지 분 넘 나 께 치 가 오 네 리 라

IMAGES © ISTOCK/THINKSTOCK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이해심의 소유자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게리 스티븐슨은 미국 유타 주 로건 성전 근처(반대쪽 페이지 참조)의 캐시 카운티에서 자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많은 교훈을 배웠다. 그의 아버지는 성신을 따르도록 가르쳐 주었고, 그의 어머니는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그는 십 대일 때 자신이 속한 신권 정원회의 우애와 봉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고, 그것은 오늘날 그가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할 준비의 일부가 되었다.

게리 스티븐슨은 약 열한 살쯤 되었을 무렵 아버지를 따라 등산을 갔다.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아버지 앞에서 저는 이 바위에서 저 바위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볼 셈으로 말입니다. 바위 꼭대기를 향해 기어오르는데, 아버지가 제 허리띠를 붙잡아 저를 아래로 끌어당기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위에는 오르지 마라. 등산로로만 꼭 따라가자꾸나.’ 잠시 후 더 높은 곳에서 그 등산로를 내려다보자, 방울뱀이 그 바위 꼭대기에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너를 끌어당긴 이유는 저 때문이란다.’ 아버지가 설명하셨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거기에 뱀이 있는 줄 아셨어요?’라고 물어보길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쭙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신이 우리 인생에서 갖는 역할, 곧 보호자, 위로자, 그리고 증거하는 자라는 것에 대해 즉석 수업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성신이 나를 통해 너를 보호하신



것이란다. 성신이 너를 잡아당기도록 나에게 경고를 하셨던 거지.”

간단하기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스티븐슨 장로는 영의 속삭임을 들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배운 많은 교훈 중 하나였다.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스승들

스티븐슨 장로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순수한 선함의 본이었다. “어머니의 기대는 제게 동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엄마를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라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부모는 함께 가정의 밤과 다른 가족



활동이나 모임을 하는 동안 복음 원리를 강조하였다. “그분들은 우리 가정이 복음의 가르침에 단단한 기반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기초였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다른 중요한 스승들 또한 그를 이끌어 주었다. “언젠가 총관리 역원으로 훈련받던 초기에,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신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스무 명의 명단을 작성해 보라고 제안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모든 분이 이런 활동을 하면 유익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훌륭한 남성과 여성에 대해 생각하면 영감을 받게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힘을 얻다

게리 에반 스티븐슨은 1955년 8월 6일에 태어나, 미국 유타 주 로건에서 자랐다. 그의 부모, 에반 스티븐슨과 진 홀 스티븐슨은 네 명의 자녀를 두었다. 게리는 그중 둘째였으며 장남이었다.



“저는 제 형제자매와 유대가 깊었습니다. 누나 데비는 제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동생들인 메릴리와 더그는 제가 모범이 되기를 바랐고요. 우리는 모두 의롭게 살며 교회 활동에 참여해야 할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친척들 또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제일 큰 사촌 형이 선교 사업을 떠나면서, 2달러짜리 지폐에 서명을 한 뒤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음 사촌에게 주었습니다. 그 2달러짜리 지폐는 세계 곳곳에서 봉사한 16명의 사촌을 거치게 되었고, 모두에게 우리는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서 하나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신권을 소유한 친구들 역시 그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

사진: 스티븐슨 가족 제공. 다음은 제임: 왼쪽: 꽃 © TUKKATA/ISTOCK/THINKSTOCK; 오른쪽: 유타 로건 성전 사진. 자비 디지털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정원회 회원들과의 교제가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배웠습니다. 단지 일요일만이 아니라 동네와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정원회를 통해 정체성과 소속감, 형제애, 그리고 봉사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한 정원회 회원과 함께 금식 헌금을 걷으러 어떤 자매님의 집을 방문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 자매님은 눈이 멀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으며 수입도 별로 없는 분이였다.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항상 5센트나 10센트를 금식 헌금으로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노력을 요구하는 은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타 주립 대학을 잠시 다닌 뒤, 스티븐슨 장로는 일본 후쿠오카 선교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일본어를 배우는 것 때문에 걱정이었습니다.

선교사 훈련원에 가서도 제 걱정은

커지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약 6주간 열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나자,

스티븐슨 장로는 일본(아래 오른쪽)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아시아와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웠다. 귀환한 후 그는 종교 교육원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났는데, 그들은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아들 닛(크레이그, 브라이언, 브렛, 카일)을 두고 있다. 스티븐슨 장로는 그가 “내 삶의 햇빛”이라 부르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을 반짝거리다.

주님께서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제가 일본어를 배우도록 축복해 주시리라는 평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방언의 은사가 신앙과 행위 및 다른 복음 원리와 같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축복이 주어집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스티븐슨 장로는 교회 역사에 관한 열정을 발전시켜서,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을 공부하고, 역사적 기록물과 가족 역사를 깊이 연구했다. 그는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 휘트머 가족,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와 마틴 해리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졌다. 그는 몰몬경의 번역과 다양한 출판본을 조사했다.

다시 한 번 그는 신앙과 근면함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조언한다. “모든 복음 질문에 대해서 모든 답이 즉각적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과 의로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감미로운 간증이 올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그는 특히 주일학교 청소년반, 복음 교리반, 청년반을 가르치도록 부름받았을 때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다. 이런 부름에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지난 수년간 스스로 경전을 연구하며 얻은 확신, 곧 경전의 참됨에 대한 강한 간증을 전했다.

유타 주립 대학으로 돌아간 스티븐슨 장로는 경영학과 마케팅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도서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도서관에 들어갈 때마다 반겨 주는 경전 구절이 있었는데

… 그건 이 구절이었습니다.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잠언 4:7]’ 이 경전 구절은 그의 마음에 새겨졌으며, 나중에 그가 브리검 영 대학교의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의 주제가 되었다.

그는 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러한 명철은 공부와 기도의 결합을 통하여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더 많은 명철이



그분에게서부터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¹

종교 교육원에서 피어난 로맨스

종교 교육원의 구약반에서 그는 리사 진 히글리를 만났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다호로 이사온, 유타 주립대의 학생이었다. “교사는 역할극에서 리사에게 이브의 역을 맡으라고 하고 제게는 그녀를 유혹하는 사탄의 역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하자고 그녀를 설득하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회상한다. 그들은 일 년여간 데이트를 한 뒤 1979년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에서 결혼했다.

스티븐슨 장로는 리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거린다. 그는 그녀를 “[내] 삶의 햇빛”이라고 말한다.² 스티븐슨 자매는 가정과 교육 분야 학위를 받고 졸업한 뒤, 결혼 초기에는 교편을 잡았고, 학교와 시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 여러 단체, 그리고 다른 공적 노력에 끊임없이 시간과 재능을 바쳤다. 그러나 스티븐슨 장로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부여해 주신 많은 자질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은사는 주부로서의 재능이라고 여긴다. “그녀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가정, 곧 영이 거하는,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을 만드는 재능이 있습니다.” 스티븐슨 자매의 이러한 능력은,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온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그녀의 남편, 가족, 그리고 그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해 왔다.

스티븐슨 장로 부부는 네 명의 아들을 두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것을 함께 즐겼습니다. 아들들은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륜 오토바이(ATV), 스노모빌, 스키, 스노보드 타기와 여러 가지 수상 스포츠 같은 야외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사는 아들들이 어느 정도 예술적 소양도 지녀서 음악과 미술에 대한 즐거움을 발전시키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은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그녀는 아이들의 ‘힘’을 잡아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업체 설립

스티븐슨 장로의 사업은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그는 몇몇 친구들과 아시아에서 선물용 액세서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 후 이 일은 운동용품 판매로 발전하였다. 그들의 작은 사업체는 그다음 30여 년간, 2,500명을 고용하는 성공적인 회사로 성장하였다.

한 직원은 스티븐슨 장로가 사업가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렇게 기억한다. “우리는 사업상 어려운 결정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일을 해야만 한다고 그에게 말했지요. 그러자 그분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스티븐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이 사업에서 훌륭한 원리를 충실히 받아들여 시행하면 사업에도 좋습니다. 성실, 근면, 동정심, 존경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을 요구하는 것은 일요일에만 언급하고 실행하는 규범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일주일 내내 실행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그가 내야 할 시간도 늘어났다. “저는 어린 자녀들을 둔 젊은 감독이었고, 또한 매년 아시아로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녔습니다. 부친께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가족들과 있을 때 온전히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더구나. 직장에 있을 때에는 완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감독으로서 교회에 있을 때에는 직장이나 가족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인생에서는 균형을 더 잘 잡아야만 한단다.’”

이러한 조언은 심오한 영향을 미쳤다. 스티븐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가족과 직업, 그리고 교회 부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 또한 잘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다—다시 또다시

한번은 존경받는 한 기업주가 스티븐슨 장로에게 “배우고, 벌고, 봉사하라.”는 조언을 했다. 2004년에 스티븐슨 장로와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 스코트 워터슨 두 사람 모두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이 조언의 “봉사하라”는 부분은 시험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여러 주주들과 고객들에게 왜 그들이 일시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게 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방문했다.

“우리가 부름에 대해 그리고 3년 동안 무보수로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리라고 설명했을 때, 그들은 그 일의 선함을 존중해 주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관리 팀의 손에 사업을 맡기고 떠났으며, 사업은 번창했다.

일본 나고야 선교부의 회장이 된 스티븐슨 장로는 아시아에 대한 그의 사랑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아시아 지역은 세계 제2의 고강도도 같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지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선교사와 회원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갔던 두 아들을 계속해서 양육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도 더 깊어졌다. 스티븐슨 자매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실의 일부로 몇 번의 개종자 침례가 있었다.

그들이 선교 사업에서 돌아온 지 고작 7개월이 지난 2008년, 스티븐슨 장로는 칠십인 제일정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저는 깜짝 놀랐으며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나보다 훨씬 더 잘 봉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전에 장로 정원회 회장, 고등평의원,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 부름받았을 때, 제가 하도록 요청받은 일을 할 만큼 자신이 충분히 단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느꼈던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부름을 받기 전에는 아마 아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부름을 받으면 하늘에서 합당한 자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의 하나는 부름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

말해 줍니다. 첫째, ‘충실하라.’ 둘째, 임명된 그 직분을 수행하라.(교리와 성약 81:5 참조) 세계 이것은 신앙을 보이고, 필요한 것을 배우며, 그런 다음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칠십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멀리 감독이었던 스티븐슨 장로는 빛나무에 달린 벚꽃처럼 부드러운 동정심으로 정평이 나 있다.(벚꽃은 일본을 나타내는 유명한 상징이다.) 그는 가까운 곳과 먼 곳에서 “구주의 사랑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었다. 사도인 그는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교리와 성약 81:5] 계속해서 가난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일 것이다.





다시 아시아로

칠십인이 된 스티븐슨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보좌로, 그리고 이어서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임명되었다.

2011년 3월,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이 초토화되었다. 진도 9.0의 지진은 2만 명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난민을 낳고 가옥 55만 채를 파손한 쓰나미를 발생시켰다.

그는 여러 번 재난 지역을 방문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사람들과 만나면, 우리의 감정은 극과 극을 달렸습니다. 우리는 비극과 희망이, 상실과 회복이 동시에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은 우리 구주의 사랑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볼 때 계속 되풀이하여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그는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직접 보았다. “재난에 대응하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은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돌보는, 교회에 신성하게 부과된 책임 중의 하나를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지표였습니다.” 그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살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한 특권이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인간성의 선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독의 유산

그는 2012년 감리 감독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동점심에 대해 더 심오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감리 감독으로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빈곤하고, 가장 억압받는 곳 중 몇몇 지역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인도주의적 원조를 할 뿐만 아니라 복지 원조와 긴급 대응책을 후기 성도 및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하는 교회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관리했다.³

스티븐슨 장로에게 감독의 역할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한다. “제가 열두 살이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감독으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와드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되신 자매님들이 많아 계셨는데, 아버지께서는 그분들을 보살필 때

종종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쓰레기통을 치우고, 집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였고, 제 친구들을 불러 저와 함께 낙엽을 긁거나 눈을 치우도록 시키시곤 했습니다. 그곳을 떠날 때면 저는 항상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홀로되신 자매님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감독이 할 일 중의 하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보살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감독은 저의 영웅입니다.”

선지자의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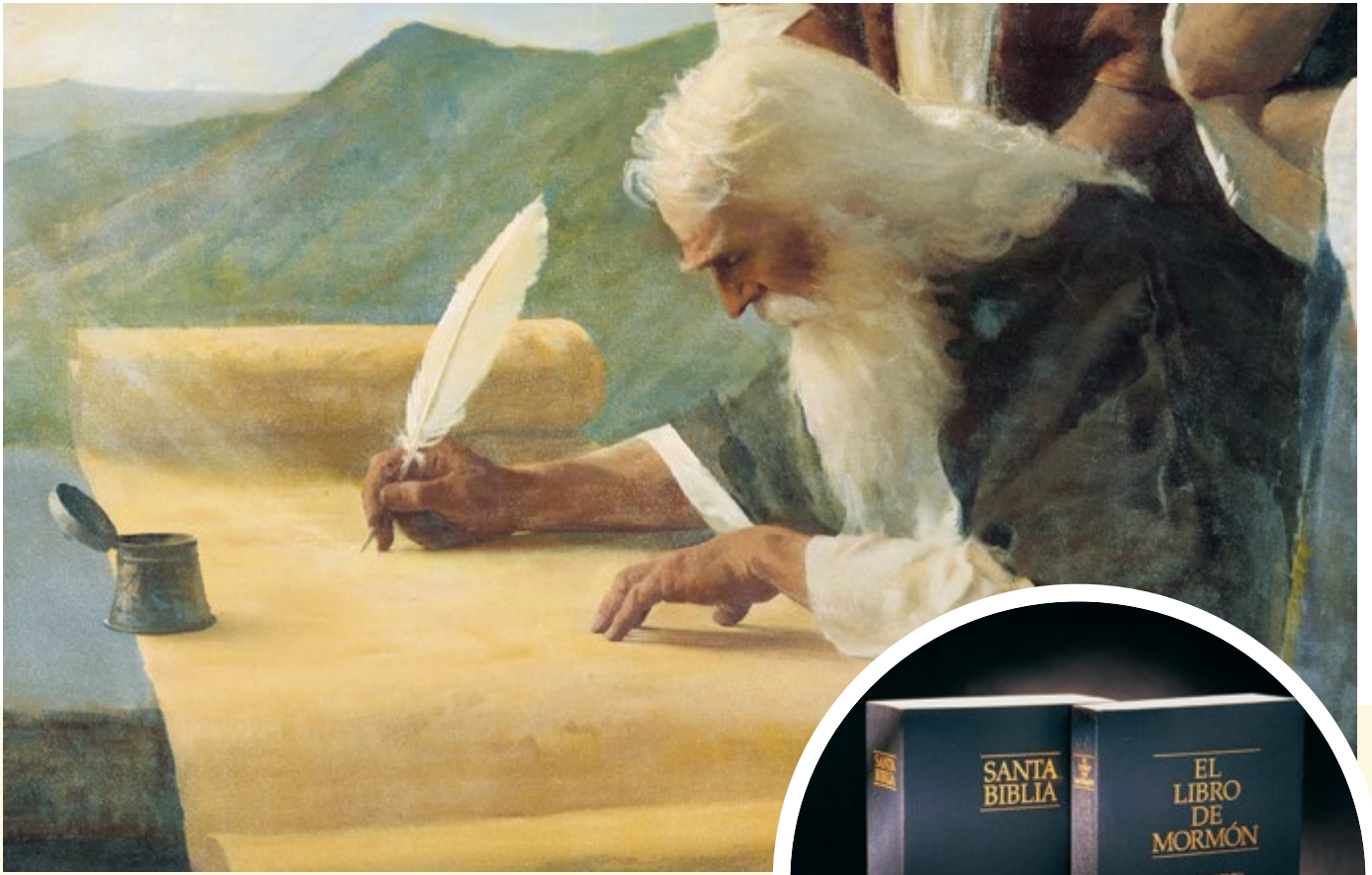
2015년 10월 연차 대회가 열리기 직전의 화요일에, 당시 스티븐슨 감독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그의 보좌들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몬슨 회장님은 제게 십이사도 정원회의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그 부름을 받아들여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 몬슨 회장님은 친절하게 관심을 보이시며, 오래전에 그분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침착하게 스티븐슨 감독님, 주님께서서는 그분이 부르시는 사람들이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실 것입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가 해 주신 이러한 위안의 말씀은 [그때 이후로] 평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⁴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참으로 간교함이 없는 사람이다. 감리 감독으로서, 그리고 칠십인으로서 그가 했고, 평생 해 왔던 것처럼, 그는 사도로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는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는 경전의 훈계를 따를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부름이지만, 이해심을 지닌 그에게는 잘 맞는 부름이다. ■

주

1. Gary E. Stevenson, “Lean Not unto Thine Own Understanding”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14, 2014), 2, 3, speeches.byu.edu.
2. 게리 이 스티븐슨,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2쪽.
3. Gary E. Stevenson, press conference, Oct. 3, 2015.
4. 게리 이 스티븐슨, “담백하고 귀중한 진리”, 91쪽.





린 지 로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는 몰몬경의 출현을 영적인 시력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야는 주님께서 후기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하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사야 29:14, 18)이라고 몰몬경의 출현을 예견했습니다.

“비참한 눈먼 상태”

영광스러운 첫번째 시현이 있기 전 그 시절의 미국 뉴욕 주 맨체스터의 종교적 열기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종파들 사이에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8)

몰몬경은 회복이 있기 전의 이 혼란을 “저 가증한 교회에 의하여 유보된 바 어린 양의 복음의 그 명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들로 인[해서] ... 비참한 눈먼 상태”(니파이전서 13:32; 강조체 추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성경이 제공하던 분명한 영적 시야가 흐려지게 되었는데, 때로는 흠이 있는 번역으로 말미암아 의도치 않게,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는]” 부도덕한 편집에 의해, 명백하고 귀한 부분을 많이 잃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니파이전서 13:27; 강조체 추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나이다]”(요한복음 9:25)

구주께서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인 것 중 하나는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킨 일입니다.¹ 그렇지만 구주의 더 중요한 사명과 기적은 영적인 맹인을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요한복음 9:39)

이사야의 비유와 후기의 영적 실명에 관한 니파이의 시현을 참작한다면, 우리는 몰몬경의 출현을 영적인 시력의 기적적인 회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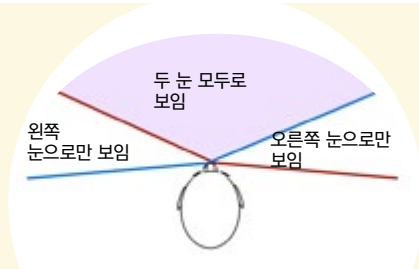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 이방인들이 ... 그 비참한 눈먼

발휘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녹내장 때문에, 실명을 막기 위해 하루 두 차례 시력 보호용 특효액을 두 눈 모두에 넣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제게 녹내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저는 이미 한쪽 눈의 시력을 일부 잃었습니다. 저는 눈이 멀지 않도록 해 준 현대의 의약품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의 일부 잃어버린 시력을 보충해 주는 다른 쪽 눈도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두 개의 눈이 비유하는 바는 제게 심오하면서도 개인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된 많은 연구들이, 두 눈으로 보는 것이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2A. 어린이 장난감이 거리 지각의 힘을 보여 주기도 한다.



1. 인간은 두 눈으로 최대 190도가량의 수평 시야각을 얻는데, 이 중 약 120도는 두 눈 모두로 본다.



2B. 동물계에서, 두 눈은 잠재적 피식자에게 정확한 거리지각을 제공하여 포식자의 위장을 알아채도록 도움을 준다.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리라. ... 그 날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권능으로 ...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많이 가져다 주리라, ...

이는 보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니,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줄 ...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록할 것이며, ...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숨겨졌다가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나아오게 되리라.

또 그 가운데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 이 마지막 기록들은 ... 첫번 기록들이 참됨을 입증할 것이요, ... 그 둘은 하나로 확립되리니.”(니파이전서 13:32, 34~36, 40~41; 강조체 추가) 이 말은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로 합쳐진다는 뜻입니다.

둘이 “하나로 확립되[는]” 것이야말로 두 눈이 보거나 기능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이점들 중 여섯 가지와, 세상에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인인 몰몬경과의 영적인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두 개의 눈은 시야를 넓히고 선명도를 높인다

인간은 두 눈으로 최대 190도가량의 수평 시야각을 얻는데, 이 중 약 120도는 겹치거나 두 눈 모두로 보입니다. 두 눈 모두로 수렴되는 시야 너머로, 각 한 쪽 눈에는 또한 고유한 주변시가 존재합니다.²

성경은 수 세기 동안 명백하고 귀한 것들을 상실한 후, 완전히 못 미치는 시력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시력을 지닌 몰몬경의 출현은 영적 시야를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개의 영적 눈, 혹은 양안시에서 겹치는 부분에 크게 필요했던 선명도, 즉 명료성을 제공했습니다.(그림 1 참조) 경전에서는 이를 두 증인의 법칙이라 칭합니다.(마태복음 18:16; 이터서 5:4;

교리와 성약 6:28 참조)

두 눈에 겹치는 시야, 즉 양안 집적 시야는 희미한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을 증대시킵니다.³ 각각의 눈이 받아들이는 개별적인 장면들이 하나의 상으로 결합되면 시선 축이 한 점으로 집중되면서 우리는 사물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⁴ 이로써 어린 조셉을 혼동시켰던 “혼란과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8 참조)

두 눈으로 보는 것이 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너무 보편적이고 자명한 사실이어서 이사야에게 “맹인의 [두] 눈이 볼 것이며”(이사야 29:18)라는 비유보다 더 나은 비유는 없었을 것입니다.(역자 주: 영문 성경에는 “eyes of the blind”, 즉 “맹인의 두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되어 있음) 우리는 현재 한 개의 영적인 눈, 즉 성경으로만 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증인인 몰몬경을 읽어 보기도 전에 거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개의 눈이 완전하고 분명한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하듯이, 그들은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에스겔 37:19)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입니다!

2. 입체시—속임수를 피함

“양안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확신을 갖고 장애물을 넘어 가거나 비껴 가게 해 줍니다.” 더 정확한 거리 지각 때문입니다.⁵ 이 뛰어난 거리 지각의 예는 단순한 사진에서보다는 3차원의 선명도를 지닌 입체 영상에서 잘 나타납니다.(그림 2A 참조)

동물계에서, 두 눈은 잠재적 포식자에게 입체시, 즉 정확한 거리 지각과 아울러 3차원에서 오는 차이를 분별할 능력을 주어서, “[잠재적 포식자]가 위장하고 있는 것을 알아채도록” 도움을 줍니다.⁶(그림 2B 참조)

몰몬경은 영적 양안시에 명료함과 신성한 거리 지각을 회복해 줌으로써 세상에 이와 유사한 보호책을 제공하며, 우리가 사탄의 위장과 속임수를 피하게 해 줍니다. 사탄은 교활하게도 성경의 여러 구절의 의미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끌어들이었습니다. 몰몬경은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니파이후서 3:12) “악마의 모든 교활과 올무와 간계를 파하고”(힐라맨서 3:29) 명명백백한 확증으로 그의 위장을 벗겼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님은 몰몬경에 관해 이런 마음 든든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몰몬경에 있는 힘은 여러분이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저항할 더 큰 힘을 찾을 것입니다. 속임수를 피할 힘을 찾을 것입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 힘을 찾을 것입니다.”⁷

3. 장애물 주변을 본다

양안시는 장애물 뒤에 가려진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더 많은 부분 또는 전체를 보게 해 줍니다. 이런 이점을 설명한



3. 양안시는 장애물 뒤에 가려진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더 많은 부분 또는 전체를 보게 해 준다. 두 그림의 차이점이 보이는가?

이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였는데, 그는 수직 기둥이 어떤 물체를 가리고 있을 때 왼쪽 눈으로는 그 물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가려지더라도, 오른쪽 눈으로는 그 물체가 보인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⁸(그림 3 참조)

영적인 면에서 이런 예는 구주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

그 다른 양들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밝히지 않으셨기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판독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몰몬경이라는 추가적인 시각을 갖고 보면, 숨겨진 뜻이 드러납니다.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제3니파이

15:21) 결과적으로 우리는 구주께서 뜻하신 바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선명한 시야를 얻었습니다. 장애물로 인한 착시는 더 이상 없습니다.

4. 각각의 눈이 갖는 주변시의 이점

“주변시란 시선의 중심 바깥에 생기는 시야의 일부입니다.”⁹ 달리 말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더라도 시야 안에 있는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런 시야, 즉 양안시나 입체시의 범위 바깥에 있는 시야의 일부는 각각의 눈에 고유한 것입니다.(그림 1 참조)

우리는 성경과 그 책에 담긴 고유하고 감명 깊은 내용,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에 관한 역사에 깊이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또한 물문경과 그 책이 주는 2.0/2.0의 흠 없고 완전한 시력에 깊이 감사합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분명히 밝히고, 고대 미 대륙의 선지자들을 통해, 또 예수께서 니파이인을 몸소 방문하여 베푸신 성역을 통해 주신 가르침을 알려 줍니다.

두 눈이 하늘의 섭리로 짝을 이루듯이, 성경과 물문경은 서로 보완하여 각기 고유한 경치뿐 아니라 두 눈이 함께 만드는 눈부신 전경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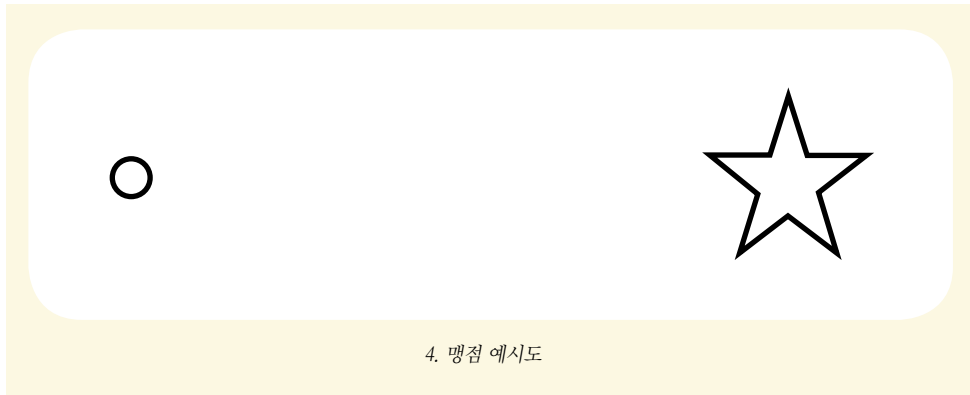
5. 맹점 제거하기

모든 사람의 시야에는 찾아내기가 비교적 쉬운 맹점이 있습니다. 원과 별이 있는 그림(그림 4)을 팔을 뻗어 앞에 들고 보십시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의 초점을 작은 원에 맞추십시오. 오른쪽 눈으로 원을 응시하면서 그림을 천천히 여러분 쪽으로 가까이 움직여 보십시오. 중도 어디선가 주변시에서 별이 사라질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맹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감고 있던 다른 쪽 눈이 이 맹점을 보완하듯이, 물문경은 성경에 이와 비슷한 유익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별이 여러분의 눈 바로 앞에서 사라졌듯이,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별을 보지 못했으므로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마태복음 2:7) 를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그 별은 그의 영적인 주변시의 맹점 안에 있었습니다. 별을 찾는 사람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헤롯처럼, 영적인 것을 찾고 바라보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지 않으려는 맹인들에게 화 있나니”(니파이후서 9:32) 교만은 또한 유대인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야곱서 4:14) 했습니다.



물문경에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식견 중의 하나는 교만이라는 보편적 맹점에 관한 사전 경고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금방 찾아볼 수 있으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별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죄”입니다.¹⁰ 그것은 입냄새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하나 당사자만 모르는 것입니다.

“전세에서의 회의에서 루시퍼가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¹¹ “니파이 백성의 [경우도] 교만이... 그들의 멸망이 되었습니다.”(모로나이서 8:27) 하나님은 불로 지구를 깨끗이 하실 때, 그루터기처럼 탈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말라기 4:1; 제3니파이 25:1 참조)

협착하고 좁은 길의 출발점에는 다음과 같이 닦쳐올 일에 대한 “경고”의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너희가 옛날의 니파이인같이 되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하라.”(교리와 성약 38:39; 강조체 추가) 비극적이게도 역설적인 것은 “조심하라”는 표지 자체가 대개 교만한 사람의 맹점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주 저의 하나님을 불러서 지혜를 배우게 [하고], 그리하여 자기 눈이 열려 볼 수 있게 [합시다].”(고리와 성약 136:32)

6. 눈과 뇌의 연결

이 등식(그림 5 참조)은 정확해 보이지만, 완전히 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말해 주는 것은 사실 뇌의 영상 체계입니다. 뇌는 밤 동안 꿈을 만들어 내고, 낮 동안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말이 틀릴 때도 있으며, 눈으로 보는 것이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요한복음 12:37) 눈만으로는 믿음을 불러일으키거나 참된 것들을 보기에 불충분합니다.

뇌가 눈과 더불어 일하듯이, 영은 영적으로 보는 데 도움을 주는 경전과 더불어 일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고린도전서 2:14)에 그저 경전을 읽기만 해서는 영적 시력을 키우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이 영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모로나이서 10:3~5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권유 말입니다.(4절; 강조체 추가)

간증과 감사

영적으로 실명되지 않기 위해, 리하이의 아들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낫쇠판을 얻었습니다.(니파이전서 3~4장 참조) 낫쇠판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갔을 것[입니다].”(모사이아서 1:5) 오늘날에는, 인쇄기와 디지털 도구 덕분에 우리는 더 쉽고 빠르게 경전을 접합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중세 암흑기에 썼던 전략대로 사람들이 경전을 구하지 못하도록 막든, 아니면 후기의 전략대로 사람들이 경전을 읽지 않도록 유혹하든, 그의 목적에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탄이 만든 “어둠의 안개는 ...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여] ... 그들이 멸망하며 잃은 바 [되게 만듭니다].”(니파이전서 12:17; 강조체 추가)

제가 일용하는 안약처럼, 다만 “최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아야]”(니파이전서 8:30; 강조체 추가) 감지하기 힘들고 또 널리 퍼져 있는 후기의 안개에 눈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거나 저활동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물문경을 읽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은 참으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책입니다. 물문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화로운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증인으로서 두 번째 눈이

두 눈 = 그들이 보다

5.

갖는 모든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음으로써, 구주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너희 눈은 봄으로 ... 복이 있도다”(마태복음 13:16) 라는 칭찬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주

1. 마태복음 9:27~31; 12:22~23; 15:30~31; 21:14; 마가복음 8:22~26; 10:46~52; 누가복음 7:21~22; 요한복음 9장; 제3니파이 17:7~9; 26:15 참조.
2. Binocular Vision,” Wikipedia, en.wikipedia.org 참조.
3. Randolph Blake and Robert Fox, “The Psychophysical Inquiry into Binocular Summation”, *Perception & Psychophysics*, vol. 14, no. 1 (1973), 161~68 참조; 또한 “Binocular vision” 참조.
4. “Vergence”, Wikipedia, en.wikipedia.org 참조.
5. “Binocular Vision.”
6. “Binocular Vision.”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2014), 141쪽.
8. “Binocular vision” 참조.
9. “Peripheral Vision”, Wikipedia, en.wikipedia.org.
10.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18쪽; 강조체 추가.
11.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 231쪽.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곱 가지 친절한 기적

에프렘 스미스

나는 텍사스 포트워스 선교부에서 여러 훌륭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내 축복된 삶을 돌아보곤 했다. 특히나
기적과도 같은 내 일곱 차례의 경험은 놀랍기만 했다.

첫째, 나는 더없이 초라한 환경에서 시작된 내 어린 시절 동안 목숨을
부지했다. 나는 에티오피아 데시에에 있던 어머니의 오두막 흙바닥에서
태어났다. 내가 알기로 내 유일한 혈육이던 어머니는 손수 나뭇가지와
진흙에 풀과 나뭇잎을 덮어 2.4미터쯤 되는 봉긋한 오두막을 지으셨다.
우리 동네에는 수도물도 없었고 화장실도 없었다. 질병과 죽음이 우리
케벨레(마을)를 뒤덮었다. 식량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음식을 사는
건 꿈도 꿀 수 없었다. 어머니와 나는 굶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머니는 내가 네 살 되던 해에 많이 편찮으셨다. 남은 힘을 다해
겨우 병원을 찾아갔으나, 내 사랑하는 어머니는 몹시도 지친 채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다. 한 병원 직원이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의 보육원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해 준 덕에 나는
굶주림으로 죽어 가던 거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 기적이 찾아왔고, 내 삶은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나는 이 보육원에서 깨끗한 건물에
머무르며 침대다운 침대에서 잠을 잤고, 원대로
음식을 먹었다. 다른 고아들도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터였고, 그들은 어머니를 잃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모여 영어로 노래를 부르고
모국어인 암하라어로 기도를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우리가 “친절하고 다정하며 사랑
넘치는 집”에 입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구했다. 음악과 기도는 모두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단 한 번도 기도를 그만둔 적이



주님은 내가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여러 기적을 행하셨다.

없었다.

세 번째로, 나는 여덟 살 때 선교사와 교회를 알게 되었다. 2003년 11월 30일, 나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후기 성도 교회 건물 헌납식에 초대받았다. 나는 헌납식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강하게 느꼈으며, 그 자리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내가 느낀 그 강한 영으로 빛이 났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

머지않아 네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서 나를 입양한 것이다. 새 아버지는 보육원에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우리는 서로 알아 가기 시작했고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나는 도착하기가 무섭게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에 맞닥뜨렸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영어를 비웃었고, 내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탓에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나는 도움을 구하며 기도했고, 그런 뒤 교육과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특히 영어를 잘 하기 위해 열심히, 그리고 현명하게 노력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년 후 나는 당당히 일반을 했다.

그런데 다음으로 가정생활이 무너졌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우며, 성공하겠다고 간절히 바라면서 그 혹독한 시간을 버텨 낼 수 있었다. 마침내 사회 복지사의 도움으로 아버지와 나는 입양 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기도와 인내,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였다.

열다섯 살이 된 나는 위탁 가정으로 가서 일 년 정도 살게 되었다. 그 무렵 다섯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두 명의 친구들과 썰매를 타다가 훌륭한 두 딸을 둔 후기

성도 가정을 만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가족의 차에 함께 타게 되었는데, 한 딸이 이렇게 말했다. “제 생각에 주님께서 우리가 에프렐 스피스를 입양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신기하게 나머지 세 식구도 똑같은 영감을 받았다. 이 아버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필요한 일을 처리했고, 나는 곧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놀랍게도 새 아버지는 맨 처음부터 나에게 선택의지를 주셨다. 가령, 아버지는 일요일이면 가족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셨다. 아버지는 같이 가거나 집에 있거나를 내 선택에 맡기셨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가족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나는 교회에 가기로 했고, 그 후로 여러가지 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여섯 번째 기적은 내가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면서 찾아왔다. 어느 일요일, 나는 성찬식에서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찬송가, 111장)을 부르고 있었다. 붉은 눈물방울이 뺨을 타고 흐르던 그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가 그분의 교회라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었다.

마침내 구 년이 흘러서야 나는 어떻게 하면 예전에 내가 보았던 그 선교사들처럼 될 수 있을지를 알게 되었다. 이제 열여덟 살이 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나는 입양 기간을 아직 남겨 둔 상태였다. 나는 입양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칠 개월이나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나흘 후에 선교사 부름장을 받았다. 주님은 단 일주일 만에 마지막 입양 서류와 선교사 부름장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다. 그 두 서류는 내게 무척이나 소중한 것이다. 그것들은 내 일곱 번째 기적이다. 그렇다. 에티오피아의 흙집에서 출발하여 소중한 선교 사업을 나오게 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기적이 내게 일어났다. ■

글쓴이는 미국 네바다 주에 산다.

와서 나를 따르라: 가정에서 기본적인 복음 원리를 가르침

여기에 소개되는 회원들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여러분도 청소년 교과
과정의 원리들을 가정에
적용할 수 있다.

엘리샤 스탠턴 및
나탈리 캠벨

선 지자들이 반복해서 가르친
것처럼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의 우리의 성공은 주로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하느냐에 좌우된다.”¹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러한 교리적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
자신과 가족은 영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영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리들을
가장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다. 우리는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며, 가족과
더불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7월

의식과 성약

신권 의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맺은 약속인 성스러운 성약은 우리의 삶에 위대한 축복을 가져다준다. 의식의 목적을 마음에 그려 보는 한 가지 방법은 그 의식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생의 길로 이끄는 이정표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청녀는 자신이 어떻게 성약의 길에 머물수 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한번은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친구가 도와달라는 것을 해 주었죠. 하지만 나중에, 제가 그 친구의 짐을 덜어 주었을 때 저는 침례를 받으면서 맺었던 성약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영이 상기시켜 주었어요.(모사이야서 18:8~10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매일 제가 성약의 길을 걷기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려고요.”

가족으로서, 각 구성원이 앞으로 받아야 하는 의식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그런 후에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매주 성찬 의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의 그런 준비는 성약에 충실하겠다는 여러분의 결심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성신은 여러분이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수 있다.



사진 출처: 데어비드 스토키

8월

결혼과 가족

결혼과 가족은 우리의 행복의 중심이자,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중심이다. 가족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기본적인 단위 조직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처럼 간단한 것을 통해 자녀에게 결혼과 가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 한 젊은 자매는 어떻게 자신이 성전 인봉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성전 해의 왕국실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 있었던 때가 생각나요. 제 약혼자의 추천서에 착오가 있어서 그날 성전에서 인봉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었죠.

저는 주님께 우리가 그날 그분의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해의 왕국실에 혼자 있어도, 너는 혼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므로 해의 영광은 천국이 되니라. 너는 영원한 너의 가족, 그리고 하늘의 가족과 함께하게 될 것이니라. 그것이 네가 인봉을 받는 이유이니라.’



사십 분이 지나고 몇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한 후에야 남편과 저는 인봉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감사와 안도로 가슴이 벅찼죠. 그 의식은 저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일 필요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의 삶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결혼과 가족의 역할에 대해 가르쳐준 경험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성신은 여러분이 적절한 경험을 기억해 내고 나누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여러분의 가족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성신은 여러분의 삶에서 결혼과 가족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9월

계명

계명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율법이며 규정이다.

그것에 대해 공부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는 순종할 때 오는 축복을 경전에서 찾아보는 것이다. 한 청년 성인은 그러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계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찾을 수 있는 경전 구절을 모두 읽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을 목록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약속된 축복에 대해서 더 배우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간증이 더 강해졌어요.”

계명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우기 위해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3장의 4토론을 자녀들과 함께 읽고, 관련 성구들을 공부하며, 약속된 축복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복음 원리 중 어느 것이라도 그와 관련된 축복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10월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그리스도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그리스도의 많은 성품들을 차례로 하나씩 발전시키려 애를 쓰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 부분을 개선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려 노력하는 것이다. 한 청년은 근면해지려는 노력부터 시작했다.

“저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전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했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제6장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시된 방법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근면에 관련된 자질을 노력해 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먼저 근면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와 그것에 관해 궁금했던 것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근면에 대해 제시된 경전 구절들을 읽어 보고, 저의 느낌들과 제가 읽으면서 찾은 답을 기록했죠. 그 후에는 학교 공부에 좀 더 근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매일 밤 근면해지기 위해 기도하면서, 의욕이 더 높아지고 한결같은 마음이 드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는 데 교회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범은 경전에서 항상 찾을 수 있고,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와 같은 자료들에는 연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경전과 다른 자료들을 함께 사용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해서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



11월

영적 및 현세적 자립



자립심을 기른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우리의 책임을 행사하고, 자신이 가진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다. 좀 더 자립하게 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아래의 회원이 말하는 것처럼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머니는 경전을 공부하기 위해 매일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영적인 힘을 어떻게 발전시키셨는지 보았지요. 어머니는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지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적인 힘과 더불어,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돌보셨던 그 능력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예산을 세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희생하며, 교육의 기회를 찾고, 우리 가족의 경제적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번 자신을 낮추셨으면서도 자녀들이 방과후에 돌아오면 늘 집에서 함께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같은 힘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 어머니의 모범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좀 더 검소한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 만일 자립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들을 청하여 여러분과 함께 배울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좋은 모범이 될 것이다.



12월

후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14) 이 질문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자문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한 회원은 왕국을 세우는 일에서 자신을 도와주실 주님께 대해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부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가르쳐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대학에 다닐 때, 상호부조회 회장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놀랍고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 해를 시작할 때 저에게 있었던 것은 제가 돌보아야 하는 백 명이 넘는 자매님들, 보잘것없는 경험, 그리고 주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시리라는 신앙뿐이었죠. 일 년이 지난 후에 저는 해임이 되었어요. 어떤 공과를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 주는 계시를 받았던 순간이나, 혹은 제가 너무 바빠서 요리할 시간조차 없을 때 여러 번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 주었던 경험들, 혹은 저를 격려해 준 수많은 메모를 받았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확실히 주님께서 왕국을 세우려는 저의 노력을 영화롭게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그들을 격려해 주고 봉사할 기회도 제공해야 함을 기억한다. 여러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을 토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주님의 사업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이 어디에서 봉사하든, 여러분의 노력은 가치가 있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 가까이 모여 서서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²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주

- 스펜서 더블유 김블, “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리아호나*, 1978년 10월호, 158쪽; 또한 엘 톰 페리, “제자의 신분”,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72쪽 참조.
-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들어올리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56쪽.

이 기사의 제1부는 *리아호나* 2016년 1월호에 출판되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여 러 시대를 걸쳐, 수많은 사람들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장정이라도 죽으면 … 다시 살리까” (욥기 14:14)라는 질문을 해 왔다.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특권이다.

그러나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 하나님도 없는 자”(에베소서 2:12)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은 죽음에 관한 여러 사실과 믿음들 사이에서 진리를 가려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죽음이 만인에게 절대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확실한 증거이자 “냉혹한 현실”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 돌아온 자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잠시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체험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보편화된 보고서를 보면, 그 사이에는 놀라운 일관성이 존재한다. 또한, 세계 도처에 있는 인류 문명에는 늘 내세에 대한 개념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일관성 역시 그것을 뒷받침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확신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증인들, 곧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신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장정이라도 죽으면
... 다시 살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태초부터

구원의 계획은 이 지상에 내려온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이브에게 처음으로 가르쳐졌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돌아간다는 말이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다는 의미임을 이해했다. 따라서, 태초부터 아담과 이브는 이 지상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이생을 마친 뒤에는 부활할 것이며, 이 지상에서 순종한다면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또한 자녀들에게도 이 가르침을 주었다.(모세서 5:10~12 참조)

종교와 무관한 세상의 학설들은 내세에 대한 믿음이 어떤 보편적인 심리적 욕구와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생겨난 결과물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그런 학설과 달리, 세상에 알려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지식은 (전세의 기억이 아니라면) 태초에 계시된 뒤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일종의 조상 전래의 기억 혹은 집단적인 기억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이 언젠가 몇몇 일반적인 종교 관습들에 대해 했던 이야기도 사후의 삶과 같은 일반적인 믿음에 적용된다. “의심할 여지없이 [그런] 지식은 ... 아담의 후손들로부터 온 세상에 전해져 내려와 ... 노아를 거쳐 ... 온 땅과 나라로 그의 뒤를 잇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 내려왔습니다.”(“Discourse”, *Deseret News*, Feb. 19, 1873, 36)

따라서, 현세 너머의 삶에 대한 믿음은 그 근원이 동일한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일 수밖에 없다.

명백하고도 귀중한 진리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진리, 즉 삶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된다는 진리에 확신을 가지고 이를 증거함으로써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주도록 도울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회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명백하고도 귀중한 진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많은 질문들에 답해 줄 수 있다. 여기 그중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변이 있다.



될 것이다. 복천년 동안에는, 다른 선한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악한 자들은 복천년이 끝난 뒤에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교리와 성약 76:32~112; 88:97~101 참조)

부활한 육신은 어떠한 모습인가?

부활한 육신은 살과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누가복음 24:39 참조),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는다.(앨마서 11:45 참조) 또한 완전하며(앨마서 11:43 참조),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것이다. “부활한 남자나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게 여겨지는 것은 없습니다.”(로렌조 스노우 회장 [1814~1901], *The Teachings of Lorenzo Snow*, ed. Clyde J. Williams [1996], 99)

부활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복천년이 끝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와 자신의 말과 행위와, 생각과, 마음의 소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요한계시록 20:12; 앨마서 12:14;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관이 되실 것이다.(요한복음 5:22, 27~29; 로마서 14:10 참조)

마지막 심판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난 뒤, 사람들은 각각 다음의 영원한 보상 중 하나를 받게 될 것이다.

해의 왕국: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복음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영생의 자격을 얻은 자들이 거하는 곳.(교리와 성약 76:50~70 참조)

달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선한 사람들, 혹은 현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하는 곳.(교리와 성약 76:71~80 참조)

별의 왕국: 사악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로, 복천년이 끝날 때까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교리와 성약 76:81~89 참조)

영원한 형벌: 멸망의 자식들과 악마와 그의 자녀들이 마지막에 처하게 될 상태.(교리와 성약 76:31~49 참조)

해의 왕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해의 왕국의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 자들은 승영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며,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된다는 것은 사랑과 봉사를 포함하여 그분의 완전한 속성들을 지니게 됨을 의미한다.¹ 그것은 또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그분의 일과 영광을 공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승영의 축복에는 영원한 결혼으로 인봉되며, 영원한 가족으로 살며, 영원한 영의 자녀들을 갖게 되는 것이 포함된다.(교리와 성약 76:59, 62; 130:2; 132:19~23 참조)

다른 왕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다른 왕국에 속한 자들은 천사로 임명되어 “섬기는 종들로서, 훨씬 더 크고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무계에 합당한 자들을 위하여 섬기게 될 것이다.”(교리와 성약 132:16) 그들은 장가들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영의 자녀들을 증식할 수 없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6~17 참조) ■

주

1. “봉사란 우리가 해의 왕국을 상속받기 위한 권리를 얻기 위해 이 지상에서 참아 내야 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삶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필수요소입니다.”(President Marion G. Romney [1897-1988], Second Counselor in the First Presidency, “The Celestial Nature of Self-Reliance,” *Ensign*, Nov. 1982, 93)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 삶에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기울이는
한결같은 노력에서
기쁨을 느낀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함



에드워드 듀브
장로
칠십인 정원회

어머니가 우리를 방문하러 짐바브웨 중부의 고향 마을에서 오셨을 때 우리 첫아이 로즈마리는 예쁜 갓난아기였습니다. 갓 부모가 된 제 아내 나우미와 저는 어머니의 방문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 양육에 필요한 지식은 무엇이든지 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천으로 만들어진 둥그런 목걸이를 꺼내셨습니다. 부적을 천으로 싸 놓은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목걸이를 나우미에게 건네주시며 로즈마리의 목에 돌려 주라고 하셨습니다. 나우미가 망설이는 것을 알아채신 어머니는 지체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와 외할머니께서 이 부적을 내게 주셨단다. 그게 나와 우리 아이들을 모두 보호해 주었지. 네 남편도 포함해서 말이다. 이 부적이라면 아이한테 닥칠지도 모를 병이나 온갖 수술에서 네 딸아이를 보호해 줄 게야. 그러면 이 아이는 살면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될 테지. 다섯 살이 될 때까지는 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야 한단다.”

그 당시 저는 지부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기에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 목에 걸려 있는 ‘부적’ 목걸이를 보면 지부 회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아마 목걸이를 잘 안 보이게 감출 수 있을 거야.” 나우미를 보니, 이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목걸이가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작고 얇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어머니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수 없으며, 이 부적은 당신이 준비해 오신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때 효험이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나우미는 저에게 안 된다는 표정을 분명히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우리 아이 목에 그 목걸이를 걸어 주면 이 지역의 지부 회장으로서는 제 마음이 불편할 것이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목걸이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기가 죽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공포스러운 위기의 순간

이러한 일이 있는 지 몇 주 후, 어린 로즈마리가 많이 아프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로즈마리를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밤이었으며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경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걸이를 받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목걸이를 받아서 로즈마리 목에 돌려 줄 걸 하고 말입니다. 이 공포의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라고 권유하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즉시 안식일 복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를 제 두 팔에 안고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저는 화평과 위안을 느꼈으며, 아내도 똑같이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축복을 주자마자 곧 나우미와 어린 로즈마리가 평화로이 잠들었습니다. 우리 딸 로즈마리는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간 로즈마리는 천천히 회복하여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주님은 애정 어린 자비 속에서 제게 손을 내미셨으며, 그분에 대한 저의 신앙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으나 조금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귀환 선교사이자 지부 회장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해 더 염려했던

것입니다.(모사이야서 4:9 참조)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우리 어머니마저도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귀환 선교사 이상의 어떤 존재, 지부 회장 이상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변화해야 했습니다. 엘마가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려면 말입니다.

크나큰 변화의 순간

사악한 노아 왕의 제사였던 엘마는 선지자 아빈아다이가 다음과 같이 예리한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를 면밀히 반성해 본 것 같습니다. “너희가 깨닫고자 너희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모사이야서 12:27) 엘마와 마찬가지로, 저는 “[저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야]”(엘마서 5:12) 했습니다.

노아 왕의 왕궁 소속 제사였던 엘마는 특권층 생활에 익숙했습니다. 엘마는 백성의 세금으로 부양을 받았습니다. 권력과 명성이 높은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는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여진 자들”(모사이야서 11:5)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마는 구주께서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곧 그분의 가르침, 고난, 사망과 부활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 또한 무궁한 생명이시니, 죽음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는!”(모사이야서 16:9) 것에 대하여 배웠을 때,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엘마는 아빈아다이를 평안히 떠나게 해 달라고 노아 왕에게 용감하게 간청했습니다. 엘마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주의 사랑을 주님의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통해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아기의 목에 걸어 주시려고

액막이 목걸이를 주셨을 때,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지부 회원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했던 것입니다. 아직 “마음의 크나큰 변화”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성공과 행복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려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 평안을 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이 ... 성신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려야 합니다.”¹

간증할 기회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엘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끼쳤으며, 노아 왕에게서 도망한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당신과 당신 자녀를 늘 보호해 주었다고 믿고 있던 부적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제가 어머니와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흘려보냈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 참으로 ...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 그들이

저는 우리 아기를 두 팔에 안고 신권 축복을 주었습니다.



지속적인 개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에 대한 충실함을 키워서 생애 내내 지속적인 개종을 경험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말입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배 안에 머물고 배를 꼭 붙드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0쪽.





엘마는 아빈아다이를 평안히 떠나게 해 달라고 노아 왕에게 용감하게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로 깨어나게 했던”(엘마서 5:7) 엘마와 같이 말입니다.

어머니와의 일화를 되돌아보니, 제가 좀 더 엘마처럼 대응했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하나님께로 깨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변화로 우리 형제자매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또 내 형제자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엘마의 크나큰 변화는 그가 가르치고 간증을 전한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와 후손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그의 아들 엘마는 제이라헤물라 땅과 그 주변 땅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부친의 간증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니—나의 부친 엘마가 아빈아다이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

이에 그의 신앙을 좇아 그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졌느니라.”(엘마서 5:11~12)

엘마와 같은 젊은이에게, 이 크나큰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마음을 기울여 보라는 아빈아다이의 권유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바로 행복의 열쇠였으며 성공적으로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게 하는 열쇠였습니다. “또 보라, 그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매, 그들의 마음에 또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니라. 또 보라, 그들은 끝까지 충실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느니라.”(엘마서 5:13)

계속해서 변화하십시오

오늘날 젊은이들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과, 복음의 충만함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부모나 보호자를 기쁘게 하는 일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양자택일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나는 나의 ‘행위가 의의 행위였음’(엘마서 5:16)을 느끼는가, 또 이 결정으로 인해 나는 계속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끼는가?”(엘마서 5:26)

우리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녀와 후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안락한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 왕의 종에게서 도망하여 매우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가르친 엘마처럼 말입니다. 엘마는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서도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엘마서 6:6) 중요합니다.

제가 신권 축복을 해 주었는데도 우리 아기 로즈마리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음과 같은 주님의 권고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0:39)

그리스도의 속죄를 우리 삶에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고,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 기울이는 한결같은 노력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는 우리 구주께서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엘마서 7:11)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고를 따를 때 진정한 안전과 보호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

주

1. Henry B. Eyring, “We Must Raise Our Sights,” *Ensign*, Sept. 2004, 16.

만세!

지 크레이그 카이저

네 살짜리 한 꼬마가 내게 새로운 방식으로 성찬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 주었다.

회 중들이 성찬 찬송의 마지막 절을 부르는 동안 나의 마음은 구주를 향해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찬송가의 마지막 절이 끝나고 난 뒤에도 반주는 계속 이어졌다. 그날은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기에 제사들이 성찬빵을 다 뿔 때까지 반주자는 두 절을 더 연주해야 했다. 나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에 감사했다. 성찬 기도문이 낭독되기 전에 경건하게 명상에 좀 더 잠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성찬 기도문이 낭독되는 동안, 나는 제사들이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상징들을 축복하며 말하는 각각의 단어에 주의를 기울였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회중들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순간, 내 자리에서 두 줄 뒤에 앉아있던 네 살짜리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아멘 소리 사이로 튀어나왔다.

“만세!” 하고 소년이 소리쳤다.

그 아이의 즉흥적이고 커다란 소리에

주위에 있던 몇몇 아이들이 킁킁거렸다. 솔직히 말하면 내 입가에도 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만세라니?” 나는 생각했다. 성찬식 기도문에 대한 반응치고는 이상했다. 전에도 들어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듣지 못할 것 같은 반응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며 기도를 마쳤다.

아마도 그 어린 소년은 내가 깨닫지 못한 더 큰 진리를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세라는 표현은 기뻐서 흥분한 감정을 전달한다. 그것은 대개 승리로 인한

기쁨을 표현하는 감탄사이다. 때때로 누군가 어려운 일을 극복했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기도 한다.¹

이내 나는 이러한 생각에 잠겼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모두 부활하게 될 거야. 만세! 그분의 속죄로 인해 우리는 용서받을 거야. 만세! 무엇보다도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실 수 있으시지! 그분의 자비로 인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누릴 수 있어! 그래, 맞아! 만세!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외치면서, 성신으로 인해 내 가슴은 눈물이 날 만큼 큰 기쁨으로 벅차 올랐다. 나는 그날 한 어린 아이에게 끌리어(이사야 11:6 참조), 구주의 속죄가 내 삶에 가져다준 축복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어 기뻐했다. ■
글쓴이는 미국 오리건 주에 산다.

주
1.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ition (2003), “hooray” 참조; 또한 en.wiktionary.org/wiki/hooray 참조.



내가 봉사하는 동안은 안 돼!

브렛 제이 포터

우리가 청남에서 봉사하는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나는 청남 아들을 둔 어느 가족과 가깝게 지냈다. 그 청남이 집사로 있을 때였다. 어느 활동 모임에서 한 교회 지도자가 그를 혼내며 친구들 앞에서 그에게 창피를 주었다. 그 이후로 그 청남은 망신을 당했다고 느껴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으며, 교회 밖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 일은 내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나는 내가 청남을 위한 부름을 받게 된다면, 그런 일이 결코 생기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집사들과 함께 일하는 부름을 받게 되었다.

부름을 받고 몇 달이 안 되어, 나는 끊임없이 반항적인 행동을 하는 한 청남과 씨름하게 되었다.

마침내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었다. “여기까지란다. 이 선을 넘어서는 안 돼.”

그는 선을 넘었다. 우리는 결국 작은 인쟁을 벌였고 그는 자리를 떴다.

나중에, 나는 우리의 의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데이빗,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넌 훌륭한 청남이란다. 그렇지만 나는 너의 몇 가지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구나. 다른 청남들은 너를 지도자로 생각하는데, 만약 네가 어떤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된다면, 그들도 따라 하게 될 거야.”

우리는 관계를 다시 회복했다. 그는 인정받는다고 느꼈고, 우리 청남 지도자들은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완화되도록 도왔다. 그가 열네 살이 되었을 때, 그는 내게 교사 성임을 부탁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그는 나와 마주칠 때마다 나를 꼭 부둥켜 안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청남 시절에 대해 감탄 섞인 어조로 이야기한다.

우리가 청남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있는 것을 즐겨워하면, 그들도 그것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들과 나는 청남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여 주었다. 우리는 교재에 나와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동을 계획하지 않았다. 청남들이 배워야 할 기술과, 성장, 그리고 즐거움을 위해 활동들을 계획했다.

한번은, 청남 활동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부모가 있었다.

“괜찮습니다.” 나는 그 청남의 부모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아드님이 와서 배우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 청남은 우리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부모는 그 청남이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그들은 아들이 배움을 얻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그 청남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의 남동생 역시 잘 자라서 훌륭한 선교사로 봉사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한 청남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과, 그 청남이 배우고 자라 결국에는 선교사로 봉사한다는 사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남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흐뭇한 일이며, 그들과 함께 배우는 일은 즐겁다. 우리가 청남에서 봉사하는 동안 성공할 수 있었던 열쇠는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산다.

모든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는 선지자

열 일곱 살 적에 나는 미국 하와이 카이루아 코나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었다. 잔심부름을 하는 사환이던 나는 호텔에 묵으러 오는 유명인들을 술하게 보았는데, 그중에는 영화 배우 존 웨인, 도로시 라무어, 에스터 윌리엄스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투숙객이 거의 도착한 뒤 호텔 앞에서 숨을 돌리는데, 검은색 리무진이 도로변에 멈춰 서더니 검은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한 일곱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검은 정장 차림의 신사 하나가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다. 운전사가 차를 댄 후 일행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들어갔다. 나는 룸서비스 응대 업무를 계속하려고 안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FBI 요원들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한 시간쯤 지나 호텔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좀 전에 봤던 그 사람들이 도로변에 대기하던 리무진으로 돌아가려고 바깥으로 나왔다. 보도로 걸어가던 그들은 검은 정장을 한 신사가 탈 수 있도록 리무진 뒷문을 열어 주었다. 그런데 그 신사는 차에 타지 않고 멈춰 서더니, 건물에 기대고 서 있던 나를 향해 돌아서서는 가까이 다가왔다.

흰철한 몸의 신사는 금속 테 안경을 썼으며 짧고 흰 턱수염이 있었다. 그분은 한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은 채 다른 손을 내밀어 내게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기품 있어 보이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어린 사람한테 와서 말을 걸다니, 나는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다.

그분이 내 담배를 가리키며, “그런 건

몸에 좋지 않아요.”라고 한 것 외에는 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친절과 품위는 내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일년 남짓 지나서 나는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칠편을 받았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의 사진을 쪽 훑어보다가 조지 앨버트 스미스(1870~1951) 회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고, 나는 대변에 그분이 호텔 앞에서 내가 만났던 그 친절하고 기품 있던 신사임을 알아보았다. 더군다나, 교회 회원도 아니고 특별히 중요한

사람도 아니던 나 같은 사람을 교회의 회장이 그렇게 대하셨다니 더욱 감개무량했다.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데다 복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알지 못하던 어린 소년에게 그런 사랑과 관심을 보이시다니 그 얼마나 크신 분인가.

65년이 지나, 나는 그 염려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한다. 그리고 스미스 회장이 나를 보셨듯 주변 사람들을 보고자 노력한다. ■

헨리 시리언 1세, 미국 하와이

검은 정장을 한 신사가 차에 타지 않고 멈춰 서더니, 나를 향해 돌아서서는 가까이 다가왔다.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네 살배기 아들 콜튼이 의기양양하게 초등학교 교사에게 받은 안내장을 내밀었다. 안내장에는 다가오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아들이 맡은 부분이 설명되어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2주 후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네 어절로 된 문장을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 대신 전체 예행 연습을 하기로 했다. 콜튼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수십 번 연습을 했고, 아내와 나는 “말할 때 장난을 치면 안 돼”, “크게 얘기해야지”라며 말을 보탰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아이가 처음보다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았다.

다음 일요일 아침,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데 양말 두 짝이 사라졌고, 팔 개월 된 아이는 이가 나는지 칭얼거렸으며, 네 살배기는 울어 댔다.

교회 모임이 시작된 뒤로 개회 찬송이 끝날 때까지 나는 우는 아이를 데리고 두 번이나 밖으로 나와야 했다. 합창단이 일어서서 노래를 부를 무렵에는 우리 가족이 조금이라도 고양되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는 꿈은 고사하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

마지막 아멘 소리가 들리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그렇게 승리를 축하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의문이 들었다.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일까? 매주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발전을 하긴 하는 것일까?”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때로 베드나 자매와 저는 우리가 그리도 힘들게 노력하여 키워 주려는 의로운 습관이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영적인 결과로 즉시 이어지는 것 같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

베드나 자매와 저는 우리 아들들이 특정한 공과 내용이나 성구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부하거나 기도하거나 배울 때마다 그러한 결과가 매번 일어나지는 않았습시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의도와 노력이 한결같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가정에 더 부지런하고 마음을 쓰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9쪽)

자신감을 회복하고 집으로 돌아간 나는 아들과 함께 연습을 거듭했다. 아들이 말씀할 순간이 다가왔고, 아들이 또랑또랑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것을 듣자 우리는 감격스러웠다.

이전에도 아들이 그 문장을 말하는 것을 수십 번은 들었지만, 집이 아닌 곳에서 혼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자니 무언가 색다르기도 하고 훨씬 더 흡족하기도 했다.

우리 어린 아들이 어른이 되기까지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이 많겠지만, 아이가 집을 떠나 혼자 있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더없이 중요한 그 문장을 다시금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임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하고, 매일 기도하고자 꾸준히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

브랜든 컴스탁, 미국 유타 주





캘리는 아이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직접 성전을 만져 보게
하고 싶어 했다

성전의 영을 느끼며

나는 미국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딸 캘리를 보러 가게 되었다. 딸 부부는 최근에 두 자녀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한 터였다. 캘리네 와드는 정오에 모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느긋하고 기분 좋게 아침을 보내며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교회가 끝나면 할 일을 의논했다. 캘리는 아직 성전에 가 볼 기회가 없었던지라, 우리는 성전 뜰에 가서 아이들 사진을 좀 찍어 주기로 했다.

모든 성전이 그렇듯,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성전의 뜰은 아름다웠고 아름다운 분수와 꽃들로 잘 손질돼 있었다.

캘리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께서 전한 이야기를 읽은 뒤 아이들을 성전에 데려가서 직접 성전을 만져 보게 하고 싶어 했다. (“평화를 찾음”,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5~6쪽 참조) 딸은 제일 먼저 손녀 스텔라에게 성전은 신성하고 중요한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스텔라는 딱 여느 세 살배기만큼 이해했고, 우리는 스텔라에게 어서 성전을 만져 보라고 했다. 그리고 스텔라와 삼 개월 된 손자가 성전을 만져 보는 모습을 담아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성전을 나설 시간이 되자 스텔라는 유난히 떠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스텔라는 아름다운 곳에서 훌륭한 시간을 보냈으며, 의심할 것도 없이 우리가 느낀 것과 같은 영을 느꼈던 것이다.

아이를 차에 태우고 안전띠를 채워 준 뒤 우리는 길을 나섰다. 나는 뒤를 돌아보고 손을 흔들며 스텔라에게 말했다. “성전아 잘 있어라고 해 보렴.” 아이는 성전을 바라보고 손을 흔들며 말했다. “성전아 잘 있어,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지만, 캘리를 보니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했다. 우리 둘 다 같은 말을 들은 것이다.

스텔라의 할아버지인 내 남편 팀은 스텔라가 태어나기 4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당연히 스텔라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본 적도 있고 가족들이 나누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그날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내 남편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날 무렵에 우리는 손주가 하나뿐이었다. 이제 열두 손자를 둔 나는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난 귀하디귀한 새로운 손주를 안아 볼 때마다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할아버지는 뵈었니? 너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시던?”

그날 성전의 신성함에 관한 내 간증은 강해졌다. 우리는 자녀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갈 수는 없지만, 바로 문 앞까지 그들을 데려가 수없이 많은 합당한 회원들이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며 거쳤던 그 문을 만져 보게 할 수는 있다. ■

캐시 로시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이었을까?

대 학 3학년 중반에 이르고 보니, 집세와 공과금 용도로 모아 두었던 돈으로는 여름을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무렵, 나는 다음 학기에 들어갈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게 되었다. 구해진 자리는 시간제 점원 일이었다.

근무 일정에 변화가 생겨 일요일 근무가 추가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면접을 볼 당시는 상점이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았던 때였으므로 나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나는 일이 중요했고 내 일이 좋았다. 나는 친구와 일을 했는데, 우리끼리 두 번의 일요일은 쉬고 나머지 두 번의 일요일에는 일을 하면 됐다. 그렇게 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부름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이 일정대로 계속 일할 수는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사실, 매주 일요일마다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식일의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상황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했다. 나는 상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방법을 알려 주시라고 기도한 뒤 니파이전서 7장을 읽었다. 19절에서 니파이가 기도하자 형제들의 마음이 누그러졌던 것이 떠올랐다. 마침내 나는 고용주들과 일요일에 쉬는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상사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자, 그들은 후기 성도가 무엇을 믿는지 물었다. 일요일에 쉬게 해 달라는 요청에는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처음에 면접을 볼 때 내가 일주일 중 언제라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종교적인 요구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여러 달이 흐르던 어느 일요일, 서둘러 교회 모임을 빠져나와 급히 일터로 향하던 차였다. 나는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곧바로 주어진 잊지 못할 그 답은 바로 이것이었다. 교회, 복음, 부름에 봉사하기, 일요일 모임에 성의 있게 참석하기, 말과 행동에서 제자가 되기.

나는 다시 한 번 일요일을 쉬게 해 달라고 부탁해 보기로 했다. 이번에 또 안 된다는 답이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사직서를 손에 들고서 말이다.

어 느 일요일, 나는 서둘러 교회 모임을 빠져나와 급히 일터로 향했다. 나는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기도하고 금식했고, 친구들의 응원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면담을 하며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지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나는 침착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사가 그렇게 해도 좋다고 답했다. 내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직서를 찢어 버렸다.

이 경험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즉각적이고 분명한 축복은 바로 일을 계속하면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점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엘리오노라 소넬리니,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끈기와 제자로서의 길

끈기는 온라인 사전에 “고집, 인내, 끈질긴 투지”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끈기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이 보이는 자질이다.”¹

구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취해야 한다고 보시는, 진정으로 선한 목표, 즉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학업을 끝마치며, 영원한 동반자를 찾고, 가정을 꾸리는 목표들을 이루려면, 끈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이 바라시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함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라시는 그런 아들과 딸이 되느냐는 모든 선한 일을 끈기 있게 해내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임 선교사 세대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로 불리며, 힐라맨의 이천 병사와 비교되어 왔습니다.² 이 젊은이들이 지닌 빼어난 성품과 끈기 있는 신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힐라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이천육십

명 중에는 피를 잃음으로 인하여 기진한 자가 이백 명이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우리가 크게 놀라고 또한 우리의 온 군대가 다 기뻐하였느니라.”(엘마서 57:25)

그들은 “그들이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바,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기이하신 권능으로 보전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심히 굳건히 믿은 연고[로]” 보전되었습니다.(엘마서 57:26)

힐라맨은 그들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엘마서 57:27)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이 강건한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결정하는 때는 비가 내려 홍수가 닥치고 바람이 우리와 우리의 집에 휘몰아칠 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 역경이 닥칠 때 우리는 시험을 받으며, 역경이 없이는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품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수년 전, 제 아내 메리와 저는 일본 나고야 선교부를 감리했습니다. 이천 명의 청년 병사를 묘사하는 용맹스럽고, 용기 있고, 강하고, 활발하며, 충실하다는 말은(엘마서 53:20 참조) 우리와 더불어 봉사한 선교사들을 잘 묘사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천 명의 청년 병사에 관한 또 다른 표현, 곧 일부 [지치고] 기진한 자들도 있었다는(엘마서 57:25 참조) 말 역시 우리 선교사들 중 일부를 묘사합니다.



선교 사업은 쉽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처의 일부는 해결되지 않은 범법에서 옵니다. 일부는 사고나 질병과 같은 방식으로 옵니다. 또 일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참되다고 아는 것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주의 제자가 되도록 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며, 우리가 죄와 의심 대신 끊임없이 의를 선택할 때 그 변화는 영구적이 됩니다.

이 이천 명의 청년 병사들은 소망에서도 끈기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길이 어려울 때조차도 간단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모보다 한 세대 앞선 세대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들 또한 선교 사업이 어렵고 실망스러워질 때 견디고 포기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암몬은 그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너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가서, 네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앨마서 26:27)

암몬과 그의 동반자들은 인내와 끈기로 고난을 헤치고 결국 놀랄 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끈기

1999년, 마시 바 자매가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서 일본 나고야 선교부로 왔습니다. 일본어가 쉽지는 않았으나, 바 자매는 끈기를 가졌습니다. 일단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자, 그녀는 사람들과 복음에 관해 멈추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입을 열며,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세우신 방식대로 온 마음을 다해 일하는, 충실하고, 인내하며, 끈기 있는 선교사에게 크나큰 약속을 하십니다.(교리와 성약 31:7 참조) 그러나 일부 선교사는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그 두려움이 사랑이 갖든 담대함을 이기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바 자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 자매는 선교 기간 내내 찾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찾았습니다.

선교 사업 마지막 날, 바 자매는 나고야에 있는 선교 본부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자매를 접견하며 훌륭한 일을 했다고 말해 줄 셈이었습니다. 바 자매는 그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바 자매는 선교 본부로 오는 동안 고등학생 나이의 소녀들이 지하철에서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녀들에게 다가가 함께 이야기해도 되는지 묻은 다음, 복음과 복음의 회복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런 후, 그중에 관심이 있어 보이는 한 소녀에게 선교사 소책자를 주고 복음을 가르쳐 줄 자매 선교사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 자매는 선교 본부로 와서 저와 접견을 했지만,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일은 아마 복음 안에서의 끈기에 관한 최고의 정의일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앙을 품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십시오.

바 자매는 콜럼버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학생 와드에서 그 소녀는 장래 남편이 될 사람을 만났고, 그들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가족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바 자매를 만났던 소녀 히토미 기타야마는 자매 선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히토미는 복음 진리를 받아들이는 동안, 인내하며 자기 나름의 끈기를 보였고, 가족들의 반대와 자신이 가진 의구심을 극복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거의 6년 후 히토미 자매를 도쿄 선교부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히토미 자매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토미는 지하철에서 바 자매를 만났던 일과 그





절제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저는 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목표와 목적을 다시 점검해 보고 절제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시도록 권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행위와 선택은 우리의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쿠엔틴 엘 쿡 장로,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49쪽.

후 복음으로 개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그녀는 귀환 선교사인 심페이 야마시타를 만나 그와 결혼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페이는 제가 일본에서 첫 번째 선교 사업을 하던 1971년 여름에 저와 랜디 체켓츠 장로가 함께 가르쳤던 분의 아들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끈기는 복음을 전파할 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죄와 유혹을 극복하려 할 때, 학업을 끝마치려 할 때, 그리고 성전 결혼과 영원한 가족을 이루고자 할 때도, 이와 같은 의로운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우자와 자녀를 지키고 모든 결혼 관계 및 가정에 오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동안 끈기와 사랑, 그리고 회복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또 구하는 축복이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때도 끈기와 다짐, 그리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과 다른 모든 의로운

일에서, 세상은 의로운 일을 하고자 하는, 또 의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을 약화시키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우리의 자녀, 그리고 다가올 세대인 그들의 자녀와 함께하는 영생입니다.

가치 있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굳히고 그 다짐을 지킬 힘을 얻습니까?

첫째, 성취할 가치가 있고 영생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되는 목표를 세웁니다. 여기에는 교육 및 취업 목표가 포함됩니다. 그 목표들은 가족, 개인적 성장, 봉사, 교회 활동, 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면서 그것들과 양립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일은 부분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되겠으나, 또 다른 측면에서 기도와 개인적인 계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분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는 많은 것 가운데에는, 함께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을 동반자를 찾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가장 의로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를 얻기 바란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혼의 축복과 책임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이런 분야 및 다른 분야에서 하라고 하실 만한 일을 찾아보십시오. 그것에 대해 연구해 보십시오.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결정을

주님께 가져가 여쭙 보십시오.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진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서, 의로운 일에 끈기를 가지려면 의로운 생활을 통해 주님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의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영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게 되는 것보다 더 장애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로운 목표를 세우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합당해지며, 발전을 방해하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할 것들을 피하십시오. 성전 추천서를 지니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성약을 지키십시오. 특히 삶이 힘들 때 성약을 지키십시오. 영원한 결혼 및 가족에 관한 축복을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견디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의로운 일에 끈질기게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남에 따라, 신앙이 강화되고, 힘과 재능이 깊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약속하신 다음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축복은 곧 오며, 어떤 축복은 나중에, 그리고 어떤 축복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오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그것이 옵니다.**”³ ■

2014년 11월 4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전한 영적 말씀 “Tenacity”에서 발췌함. 영어로 된 전문은 speeches.byu.edu에서 볼 수 있다.

주

1. Vocabulary.com/dictionary/tenacity.
2. 엠 러셀 벨라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세대”,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47, 48쪽; 물론경이 이에 관해 묘사한 부분은 엘마서 53:17~21; 56:17, 45~48; 57:20~21 참조.
3.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5쪽.

안식일의 승리자들

사만사 맥패디엔

력 비 코치가 우리 팀에게 전국 대회 준준결승 토너먼트 시합이 일요일로 정해졌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 머리에는 “왜 하필이면 지금이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2010년 브리검 영 대학 여자 럭비팀이었던 우리는 전국 대회를 위한 해 내내 준비해 왔다. 우리는 작년 토너먼트에서 우리를 꺾었던 팀과 다시 겨루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팀에는 전국적으로도 실력이 출중한 선수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팀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다. 우리는 전국 럭비 대회에서 우승해서 팀의 실력을 입증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 분명했다.

표준을 굳건하게 지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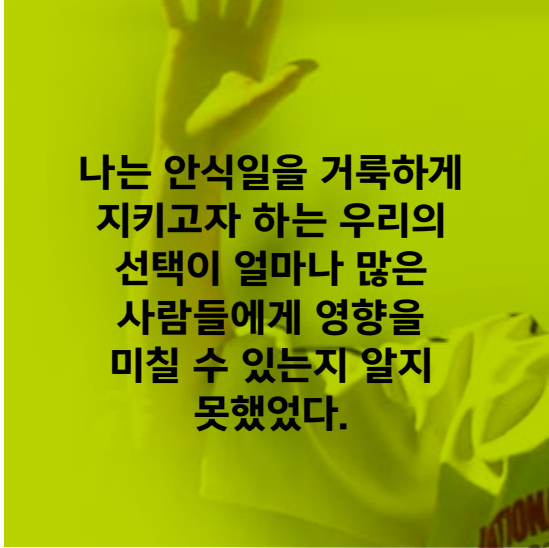
토너먼트 대회 임원들이 우리 경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열릴 거라고 약속했음에도, 실수로 인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경기 일정이 정해지고 말았다. 우리는 미국 플로리다 주 샌포드 시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던 토너먼트 경기 닷새 전까지도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을 모르고 있었다. 당시 여자 럭비는 BYU 공식 팀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경기에 참여할지 여부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우리들은 그 경기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일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고, 아무도 그 결정에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에 경기를 하는 것이 고려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셨으며, 나는 평생 계명에 충실해 왔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럭비 경기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플로리다 주로 향하면서,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토요일 경기가 우리의 마지막 경기가 되리라는 생각에 낙심이 되었다.

플로리다 주에 도착하고 나서 우리는 뉴욕 타임지의 기자에게서 우리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우리의 결심에 대해 누군가가, 하물며 전국 신문사와 같은 곳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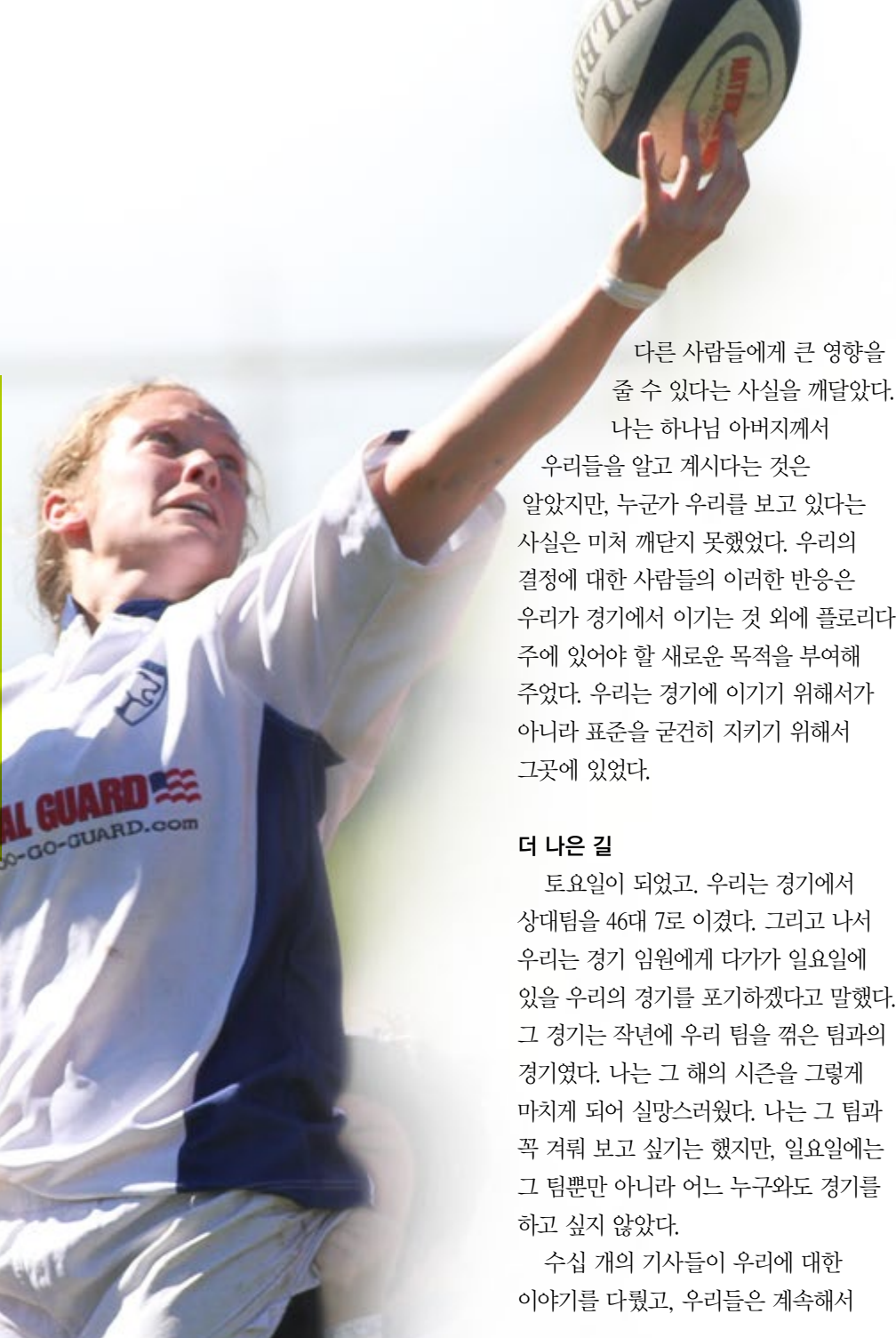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않았었다.

일정에 차질이 없었더라면 경기가 열렸을 금요일에,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받으러 플로리다 주 올랜도 성전으로 갔다. 의식을 마치고 난 뒤, 우리는 성전 회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 쓴 기사를 꺼내셨고, 우리의 결정을 응원한다고 독자들이 온라인에 올린 댓글을 몇 개 읽어 주셨다.

이후에 우리 팀의 코치도 자기가 받은 글들을 더 읽어 주었다. 후기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모범에 감사를 표하며, 표준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 힘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들의 말에 우리는 사기가 높아졌다. 우리는 전국 대회의 우승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알고 계시다는 것은 알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우리의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우리가 경기에서 이기는 것 외에 플로리다 주에 있어야 할 새로운 목적을 부여해 주었다. 우리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준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다.

더 나은 길

토요일이 되었고, 우리는 경기에서 상대팀을 4대 7로 이겼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경기 임원에게 다가가 일요일에 있을 우리의 경기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그 경기는 작년에 우리 팀을 꺾은 팀과의 경기였다. 나는 그 해의 시즌을 그렇게 마치게 되어 실망스러웠다. 나는 그 팀과 꼭 겨뤄 보고 싶기는 했지만, 일요일에는 그 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와도 경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수십 개의 기사들이 우리에게 대한 이야기를 다뤘고, 우리들은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

“구주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자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한 우리의 선택을 매우 분명하게 [해 줍니다]. ...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든지 우리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로 믿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러셀 엠 벨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0, 132쪽.

응원의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다. 표준을 지킨 덕분에, 우리는 그 선수권 대회에서 이겼으면 만났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도 더 나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 팀원들은 챔피언이 되어 우리의 역량을 입증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기를 바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를 선한 목적에 쓰실 수 있으셨다. ■

글쓴이는 미국 워싱턴 주에 산다.



사진 출처/자료 제공: 브리검 영 대학교 여자 럭비 팀 및 폴 메이저즈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

때때로 선교 사업에서 가장 힘든 점은 선교 사업이 아니다.

웬디 올리히 박사

한 선교사가 내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다. “선교 사업이 힘들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 할 때, 저는 그 말이 추위나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하게 되든지 아니면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의미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힘든 부분은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동반자로 인해 실망감이나 낙담을 느끼게 되거나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그런 감정의 기복과, 거절과,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지요.”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일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읽고 경전 공부를 하고 요리 및 빨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는데 필요한 정서적, 사회적, 기타 다른 능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험을 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능력 중 몇 가지를 목록으로 만들어 보았다. 여러분은 이 중 한두 가지에 표시를 하고 바로 연습을 시작해 볼 수 있다.

굴욕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겸손해지는 법

미국 알라바마에서 봉사하는 한 자매 선교사가 내게 말했다. “선교사로 성별받았을 때, 저는 웬지 특별한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약점, 두려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주님의 사명을 하기에는 부족한 제 모습을 대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했어요.”

선교 사업을 나올 때 성공한 경험이 많은 적든, 여러분이 겸손하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 계속하여 기꺼이 노력하고 일하려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수 있다. 그러나 선교 사업의 능력은 연습하고 질문하고 도움을 받고 계속 노력할 때에만 향상될 것이다. 선교 사업이나 언어, 간증, 혹은 인간 관계에 천성적으로 능한 사람이 있다고 (또는 천성적으로 서투른 사람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어떤 선교사가 한번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선교 사업이 저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실제로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은 당신만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제가 부족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발전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저 혼자서 헤쳐 나갈 필요는 없어요. 그분께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새롭고 힘든 일을 시도해 본다. 그러면 부족하다는 느낌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새로운 일, 과외 활동, 생소한 수업 등 익숙한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해 주는 일을 시도해 본다. 질문을 하고 도움을 받고 실수를 분석하면서 계속 노력한다. 연습과 노력이 필요한 일을 맡아 한다. 이렇게 하여, 노력하면 발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
- 재능과 지능, 또는 사교 기술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속삭이는 목소리를 떨쳐 버린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운동선수들, 음악가들,



학자들, 그리고 선교사들은 성공에 이르기 전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오랜 시간을 연습하고 노력한 사람들이다.

예상되는 (또 실제로 마주하는) 거절에 대처하는 법

선교 사업을 해 보면 거절과 낙담은 일상적인 경험이 된다. 낙담하거나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연습 삼아 이를 감수해 봄으로써 이러한 상황에 더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한다.

- 일자리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시간제로 또는 전일제로 일한다.
- 팀이나 경기에 지원해 본다.
- 데이트를 청하거나 활동 모임에 사람들을 초대한다.
- 일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을 잘 이겨 내고 기분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과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 시도해 본다.

동기를 부여하는 법

우리는 모두 삶증이 날 때 자기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따분하거나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호기심을 갖고 살펴본다. 또는 스스로 흥미를 찾거나 거기서 배울 점을 찾아낸다.

여러분이 언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지 살펴보고, 선교 사업을 하면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일(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쉬기, 글쓰기, 노래하기, 걷기)을 알아낸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제를 분석해 보며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조금씩 나아가며, 기도하고, 부정적인 혼잣말을 떨쳐버린다.

차이점을 조정하는 법

동반자, 지도자, 교회 회원, 구도자는 훌륭한 사람이겠지만 때때로 여러분의 인내심을 시험할 때가 있을 것이다.

- 형제 자매, 친구와 함께 이러한 연습을 해 본다.
- 사람들에게 그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봄으로써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책임을 지고 그 행동을 진심으로 사과한다.
-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연민 어린 마음으로 그 이유를 찾아낸다. 빠지거나 양심을 품지 않는다.
- 문제가 있을 때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 문제에 안달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한다.
- 의견 충돌이 있으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자신과 성향이 다른 사람의 룸메이트가 되어 방을 함께 쓴다. 룸메이트의 취향을 인정해



주고 그 취향에 호기심과 관심을 가져 본다.

대화를 나누는 법

내성적인(수줍은) 사람이든 외향적인(사교적인) 사람이든, 여러분은 훌륭한 대화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이 기술은 선교 사업에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평생에 걸쳐 필요하다.

여러분이 내성적인 편이라면:

- 매주 오 분 동안 잘 모르는 사람(특히 낯선 성인)과 대화를 나누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대해 호기심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적절한 질문을 익힌다.
- 대화를 시작하고 상냥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을 알아본다.
-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시작하려 하는 순간을 잘 포착하여 솔직하고 적절하게 응대한다.

여러분이 외향적인 편이라면:

- 질문을 하여 상대방에게서 이야기를 이끌어 낸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연습을 한다.
-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루해하는 신호를 알아챈다. 다른 사람에게 여지를 준다.

신체적 및 물질적 복리를 유지하는 법

내 남편이 선교부 회장이었을 때, 그는 우울증을 겪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선교사와 대화를 나눴다. 남편은 그 선교사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로님, 아침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아이스크림이요.”

“점심 식사로는 무엇을 드셨나요?”

“감자 튀김이요.”

“저녁 식사로는 무엇을 드셨나요?”

“감자 튀김과 아이스크림이요.”

“감자 튀김과 아이스크림만 먹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한 달 정도요.”

“숙제를 드리지요. 집으로 가서 신선한 녹색 음식을 드세요. 민트 아이스크림은 빼고 말이죠”

- 식습관과 운동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 다음과 같이 시작할 수 있다.
- 양질의 영양 섭취에 대해 배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다. 편식하는 습관이 있다면, 새로운 음식을 몇 가지 먹는 것부터 시작한다.
- 운동을 한다 정기적인 운동은 불안감과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 야간 산책(친구와 함께 또는 음악을 들으며), TV 광고가 나오는 동안 제자리걸음 하기, 또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천천히 늘려 나간다.
- 소지품, 옷, 돈, 시간 관리법을 배운다.
- 수면을 조절한다. 취침이나 기상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해결 방안을 물어본다. 선교사처럼 취침 및 기상 시간을 정해 두고 생활한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법

- 유머 감각을 키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농담의 소재로 이용한다.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스트레스를 필요 이상으로 받지 않는다.
- 귀환 선교사에게 어떤 일이 어려웠는지, 그런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야기 해 달라고 한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는지 생각해 본다.
- 마음을 고양시켜 주고 신앙으로 채워 주는 경전 구절과 찬송가 목록을 만든다.
-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긍정적인 생각으로 물리친다. 만약 그 목소리가 빈정거리거나,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수치스럽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잔인하다면, 또는 절망적인 느낌이나 무기력한 느낌이 들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목소리가 아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늘 희망으로 가득하고, 격려해 주며, 동정심으로 가득하다.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영적 복리를 유지하는 법

- 진심으로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곁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이 지닌 문제와 소망, 감사를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소리 내어 기도해 보거나, 기도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을 종이에 연필로 기록해 본다. 혹은 감사만 표하는 기도를 드려 본다.
- 경전을 연구한다. 걱정거리에 대해 응답을 찾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다.
- 지금 선교사가 된다. 전임 선교사와 함께 나가서 봉사하고, 매일 친구들과 대화할 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교회에서 진솔한 간증을 나눈다. 이렇게 하면, 선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질 것이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 주에 산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두 부류의 사람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이 선교 사업 기간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 **아주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학교를 마친 사람.** 머리가 좋거나 재능이 많아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학교 생활을 무난히 마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일종의 마법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이 마법이 무너져 내리면(이 순간은 꼭 찾아온다), 이들은 실수를 감추려 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른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겸손, 근면, 연습, 도움 받기, 장애와 실패 극복하기 등을 배우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 **한번도 큰 성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그들이 멍청하고 재능이 없음을 확인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두뇌는,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잘못된 일을 분석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도움을 받고, 열심히 일하고, 연습할 때 더욱 명석해지고 유능해진다.

여러분이 어느 부류의 사람이든,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선교사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자주 기억하도록 한다. 선교 사업을 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려면 연마와 수없는 노력, 위험을 감수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하며, 여러 번 실수를 하고 나서도 또다시 시도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며, 주님께 온전히 의지해야 한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전임 선교사로서의 사명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명도 완수하도록 도와 주실 것이다.

선교사 생활 준비하기

당장 선교 사업 준비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면, 선교사 생활에 적응할 자료 책자를 store.lds.org에서 또는 감독님을 통해 받으실 수 있다.



우리들 공간



여러분의 삶에서 몰몬경의 힘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선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 힘을 시험해 보자!

나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고 등학생이었을 때, 나는 교회의 교리 중 몇 가지에 마음이 상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저활동이 되었다. 다른 교회의 활동 모임에 몇 번 참석했지만, 나의 기쁨은 충만해지지 않았다. 무언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던 어느날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자 탁자 위에 놓인 몰몬경이 보였다. 막 자려던 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몰몬이었어. 그런데 왜 한 번도 몰몬경을 끝까지 읽어 본 적이 없지?” 그날 나는 몰몬경을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여러 해 동안 탐구한 끝에, 나는 마침내 행복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다. ■

제이미 프라미스 장로, 필리핀 케손시티 선교부

사람들이 그 책을 펼쳐 보면

나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몰몬경을 펼쳐 보고 그동안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가족과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탕자들이 그 책을 펼쳐 본 후, 집으로 돌아와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나는 파탄 지경에 이른 가족들이 함께

몰몬경을 읽고 나서 성전에서 인봉받는 것을 보았다.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책을 펼친 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이 책을 펼쳐 들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절을 인용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페이지마다 들어 있는 하나님의 권능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적을

불러 일으킬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여러분이 몰몬경을 펼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 그런 기적들은 아마도 항상 우리가 원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

벤저민 바라디 장로,
필리핀 바롤로드 선교부

선교부
임지로부터



사진 심화: 데이비드 스토키

울부짖는 영혼

그는 말을 걸기 쉬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그에게 정말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티븐 덕데일

나는 이탈리아 카타니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있었다. 한번은 우리가 몹시 어려운 고비를 맞았을 때였다. 잘되는 일 하나 없이 한 주가 흘렀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미소를 잃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가가 매일매일의 시험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분위기를 바꿔 보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숙소 근처 공원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입에 담배를 문 한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 일색이었고, 크고 평퍼짐한 겹옷에 달린 모자를 머리에 덮어쓰고 있었다. 그는 말을 걸기 쉬워 보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를 본 나와 동반자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시 그에게 눈을 돌렸다.

팔리 장로가 나에게 물었다. “우리가 전에 저 사람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던가요?”

나는 대답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틀림없이 아는 사람 같거든요.”

팔리 장로도 말했다. “네, 저도요.”

그래서 우리는 걸음을 옮겨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평소에 말을 걸 법한 사람은 아니었기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나는

한편으로 그에게 정말 말을 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그는 누가 감히 내 잠을 방해하느냐는 듯한 성난 얼굴로 우리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웠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자, 그는 곧 자신은 무신론자이며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유를 묻자 그는 의외라는 얼굴을 했다.

“왜냐하면, 나는 같은 달에 어머니, 아버지, 누나, 그리고 조카를 모조리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비참하고 고독하게 살고 있죠. 종교는 아무 쓸모가 없고 나를 더 비참하게만 해요.”

우리는 그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카타니아 묘지요. 아주 오랫동안 거기 있었어요.”

우리는 그에게 영의 세계와 부활에 관해 들려주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모두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으며, 죽음은 영혼과 육신을 잠시 동안만 갈라놓는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그에게 그의 가족들은 육신을 갖고 모두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를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우리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한마디도 이해할 수 없군요. 다시 한 번 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그는 당혹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말했다. “잠깐, 내가 영혼이고 육신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지금 나를 기다리면서 배우고 있다고요?”

우리는 엘마서 40장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서 많은 성구를 읽어 주었고, 그는 우리를 보며 물었다. “그런데 난 왜 여태 이것들을 들어 보지 못했을까요?”

나는 살면서 이보다 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길을 잃은 상태였고, 큰 혼란과 고독에 빠져 있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말을 빠짐없이 귀담아들으며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에 들어 했다.

우리는 그에게 기도로 답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어린 시절 교회에서 기도문을 암송해 본 뒤 30년이 넘도록 기도를 한 적이 없었다. 우리가 영이 주는 응답에 관해 이야기하자, 그는 영이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동반자와 나는 각자 그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이야기했다. 나에게 있어 영의 느낌이란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어머니가 안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나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도 나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살면서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어머니가 안아 주시는 느낌이 들 것이라고 말이다.

우리는 그에게 함께 기도해도 될지 물었다. 그는 어리둥절해 하며 물었다. “지금요? 여기, 공원에서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세요.

특히나 그분은 오랫동안 형제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기 때문에 형제님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성인을 향해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고는 기도란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기도하는 법을 매우 알고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신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으며 자신의 가족에 대해 염려한다.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 즉 그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이라는 지식에서 오는 소속감을 필요로 한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1쪽.

싶어 했다. 우리는 고개를 숙였고, 내 동반자가 우리의 새 친구 알피오를 위해 기도하며 그에게 축복과 도움, 위안이 주어지기를 간구했다. 동반자는 알피오가 가족이 모두 무사하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는 응답을 받게 되기를 빌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자 알피오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일에는 말이죠. 방금 어머니가 아주 꼭 끌어안아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겨 본 것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방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대체 어떻게 하면 그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거요? 그런 포옹을 다시 받고 싶어요.”

이튿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전날과 같은 벤치에 우리와

“어제 기도를 하고부터 나는 고개를 들고 모든 것을 살피며 걷고 있지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나란히 앉은 알피오는 말했다. “장로님들, 나는 평생 모자를 뒤집어쓴 채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걸었답니다. 정말이지 고개를 들고 걸어 본 적이 없어요. 어제 기도를 하고부터 나는 고개를 들고 모든 것을 살피며 걷고 있지요. 세상은 아름다워요.”

당연히 우리는 알피오가 더 많은 포옹과 빛을 받고 삶을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를 도왔다. 벤치에 앉아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우리를 싫어할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느끼고자 애원하며 진정한 울부짖는 영혼이었다. ■

글쓴이는 미국 미주리 주에 산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선교사를 돕는 방법

우리는 전 세계에 있는 전임 선교사들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기도 가운데 공통되는 요소는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개인과 가족들에게 전임 선교사를 인도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다면 선교사들에게 배울 사람들을 찾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선교사들은 전임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며, 여러분과 저는 배울 사람을 전임으로 찾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선교사인 여러분과 저는, 전임 선교사들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구한다면, 단지 소망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기도한다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놀라운 방법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 우리의 삶에 소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교리와 의식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 입을 열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간구한다.
 - 우리의 가정에서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들어 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일 개인과 가족을 찾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한다.
 -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망설임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구한다.
 - 분별의 은사를 위해 간구한다. 즉, 선교 사업의 기회가 생길 때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게 해 달라고 간구한다.
 -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 이 기도에서도 감사를 표하고 다른



축복들을 간구할 수 있으며, 기도는 구주의 이름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 그 기도의 헌신적인 노력은 계속되고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한 교통과 헌신적인 노력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친구 및 교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행할 때 기도가 의미 있어진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문이 열릴 것이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알아보게 되며, 그 기회에 맞게 행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약속드립니다. ■

2008년 4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발췌함.

“제 부모님은 상스러운 말을 입에 올리고,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며, 부적절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집에서 영을 느낄 수 있을까요? 특히 일요일에 말입니다.”

여러분은 침례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처해 있는 상황에 관계 없이 여러분이 합당성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결정을 훌륭하게 내린다면 영의 동반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주 성찬을 들 때, 여러분은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하여] ...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교리와 성약 20:77) 하나님 아버지와의 성약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성약을 지킴으로써, 여러분은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일요일에 성찬식과 여러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이 성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가정 환경에 관계 없이, 여러분이 성약에 충실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 복음 공부, 다른 사람, 특히 외로운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가족이 이러한 활동을 선택하지는 않더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용기를 내서 말하세요
부모님이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가정에서 특별히 일요일에 늘 영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왜 중요한지 부모님과 이야기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여 교회 회원에게 여러분과 같이 있자고 초대하고, 함께 영을 그곳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성스럽게 지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스카레스 시, 16세,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집중하세요

저는 일요일에 집에 있는 것이 늘 힘이 들어요. 저는 우리 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에요. 우리 부모님과 오빠들은 안식일에 TV를 보고 음악을 들어요.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저의 사랑을 보이고 싶어요. 저는 방에 가서 경전을 읽으며 교회 음악을 듣고, 친구 또는 선교사와 함께 방문을 갈 수 있어요. 저는 안식일을 성실하게 지키기 위해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려요. 또 항상 제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라이즈 디 제투스 엠, 19세 브라질, 세르기페

경전을 펴세요

부모님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세요. 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야 집에서 영을 느낄 수 있을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집에서 영을 느끼기 위해 저는 경전을 읽어요. 읽는 즉시 방에 영이 함께 하거든요.

블레이크 이, 14세, 미국 유타 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물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올린 바 의인들의 기도도 기억하시리라.”(물문서 5:21) 여러분의 부모님이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당장 멈추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클 엠, 17세, 미국 애리조나 주



교회 자료를 활용하세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있다면, 물문 채널과 LDS Youth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이 앱에는, 틀어 놓으면 언제나 영을 불러오는 훌륭한 노래와 비디오, 말씀이 가득 들어 있어요! 단순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시끄러운 소리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영을 느끼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집안 전체에 변화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와요.

헌터이브 브이, 16세, 미국 텍사스 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세요

가정이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사람이 영으로 가득

차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항상 영을 동반하시는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영을 동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말이예요.

이사벨 더블유, 16세, 미국 오리건 주

가족 활동을 제안하세요

일요일에,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합당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장소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하자고 해 보세요. 가족이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가족은 더욱 가까워져요. 또 그렇게 할 때 가족들은 여러분이 일요일에 하는 일들을 달리 보게 되죠. 다음주 일요일에는 가족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있잖아, 지난 번에 했던 것 재미있던데—또 해 보자.”

라이언 비, 19세, 미국 아이다호 주



영적인 속삭임에 따라 행동하기

“저는 이같이 격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신의 영향력을 느낀 때가 있을 것입니다. ...

그런 영감의 순간을 얼마나 설명한 신앙의 씨앗으로 간주해 볼 수 있습니다.(앨마서 32:28 참조) 씨앗을 하나하나 심으십시오. 속삭임대로 행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영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

“순종한다면, 더욱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 지속적으로 영의 느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옳은 것을 선택할 힘이 커질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외장단 제1보좌, “우리의 동반자인 성신”, 리이호나, 2015년 11월호, 105쪽.

다음 질문

“제 단짝 친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친구와 복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교회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6년 7월 1일까지 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에 이메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보내실 때, 다음 사항과 동의서도 같이 보내셔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방법

데이비드 모랄레스

우리는 모두 소속감을 갖고 싶어한다.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소외되었다고 느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음에 소개한다.

좋은 친구가 되는 법

소외당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거나 토라져 있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렇게 해 보자.

- 교회 활동 모임에 참석한다. 활동 모임은 여러분의 표준을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특기를 배우고 발전시킨다. 학생회에 가입하거나, 운동팀이나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은 여러분과 흥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 다른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 달라고 청할 때까지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는다.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한다.
-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사람이 되고, 표준을 유지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품성과 여러분이 발하는 빛에 감사하는 친구들을 찾게 될 것이다.
-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가장 좋은 친구 중 몇 명은 자신의 가정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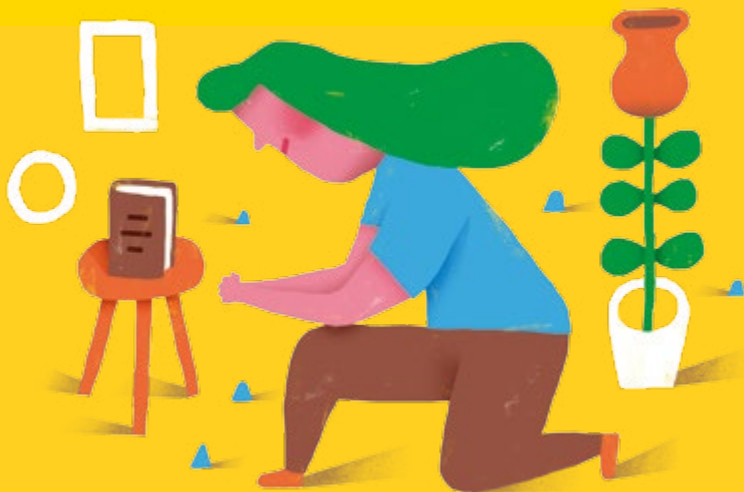
나는 청소년 때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일요일 모임에는 나가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많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청소년 중 한 명이 나를 교회 활동 모임에 초대했다. 그 모임에 갔더니 활동이 마음에 들었다. 연극, 농구, 그리고 달리기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다.

활동 모임에 계속 참석하면서, 청소년들을 많이 알게 되었고, 그중 많은 친구들이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른 뒤 나는 나와 같은 표준을 가진 청남 청녀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다. 누군가 나를 교회 활동 모임에 초대해 준 사실에 감사하며, 내가 그 초대에 응했다는 것 또한 감사하다.

여러분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소외되거나, 어울리기 힘들다고 느껴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소외당했다고 느끼는, 친구도 별로 없는 누군가를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학교나 교회, 또는 다른 어느 곳에서든, 살아가면서 한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 여건을 사려

깊게 배려하고자 늘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모욕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동정심을 보이고 격려해 줍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회장, “사랑·복음의 정수”,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91쪽.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법

때로 편하게 느끼는 교우관계를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된다. 여기에 몇 가지 제언을 소개한다.

- 학교나 교회에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건다. 그 사람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 친구가 필요한 사람을 학교나 교회 활동에 초대한다.
-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친절로 맞선다.
- 혼자 앉아 있는 사람 옆에 앉거나 그 사람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함께 앉도록 권한다.
-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 그분은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도움을 베풀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

저자는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에 산다.

의를 위해 설 거예요

에이샤 탠, 미국 유타 주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이에요!

저는 아일랜드에 살고 헐링이란 경기를
하기 좋아해요. 헐링은 아일랜드 운동인데
밖에서 하는 필드 하키랑 비슷하죠.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학교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지기

전학 온 남자아이 하나가 제 여동생들을
괴롭혔어요. 저는 중간에서 동생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저는 지혜의 말씀에도
순종해요.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이 차와
커피를 마셔요. 누군가 저에게 차를 주면,
저는 “고맙지만, 괜찮아.”라고 말해요.



에반이 알려 주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생활하는 법

복음대로 생활하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 포기하지 않는다.
- 성신에 귀 기울인다. 그가 이끌어 줄 것이다.
-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얻도록 도와주면 그들의 생활이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한다.

친구들과 기도하기

저는 가톨릭 학교에 다녀요.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은 저와 여동생들뿐이에요. 한번은 할머니가 편찮으셨는데,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해도 될지 선생님께 여쭙 보았어요. 저희 반 친구들이 모두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가 친구들 앞에서 소리 내서 기도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빠

저는 옳은 일을 계속하려고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부모님을 도와서 여동생들을 돌봐요. 동생들이 겁을 먹으면 그 애들이 무서움을 잊어버릴 때까지 제가 놀아 주지요. 한번은 부모님이 외출을 하셨는데, 제가 동생이 잠들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본보기가 되기

제 학교 친구들은 제가 행복하다는 걸 알아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모습으로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저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해지나요? 여러분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의 이야기와 사진을 보내 주세요. liahona.lds.org ("작품 제출"을 클릭하세요.)에서 제출하거나 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조던의 공부 친구

커스틴 아이디
실화에 근거함

“영의 인도로써 나 경전이 참됨 알리라”
(어린이 노래책, 66쪽)

조던이 커시 누나를 못 본 지도 일
년이 지났어요. 마치 평생 못 본
것 같았죠! 누나는 수술을 받아야 해서
선교부를 잠시 떠나 곧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조던은 누나가 아픈 것은
슬펐지만, 곧 함께 지내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기뻐했어요.

다음날 조던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커시 누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조던은 뛰어가서 누나를 껴안았어요.
“안녕, 조던! 보고 싶었어!” 커시
누나가 말했어요.

조던은 웃었어요. “나도 누나가 보고
싶었어! 누나가 아프대서 걱정했어.”

“고맙다. 친구.” 누나가 말했어요.
누나는 무릎 위에 몰몬경을 들고
있었어요.

“누나랑 같이 읽어도 돼?” 조던이
물었어요.

“가서 네 몰몬경을 가져올래? 우리
처음부터 함께 읽자.”

조던은 방으로 뛰어가서 몰몬경을

들고 왔어요. “가져왔어!” 뛰어오며
조던이 소리쳤죠. 그는 누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함께 표제지를 펼쳤죠.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조던이
읽었어요. 그리고 서로 번갈아 가며
읽었어요.

“누나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동반자와 함께 매일 경전을 공부했어.”
누나가 말했어요. “선교부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누나의 공부 친구가
되어 줄래?” 누나가 물었어요.

“좋아!” 조던이 대답했어요.



조던은 커시 누나와 함께 공부하던 때가 그리웠어요.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커시 누나가 선교부로 돌아갈 때쯤, 그들은 함께 니파이후서를 읽고 있었어요.

조던은 커시 누나가 정말 그리웠어요. 특히 누나의 공부 친구였던 때가 그리웠죠.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제이크의 책상으로 갔어요.

“난 침례받기 전까지 물문경을 끝까지 다 읽을 거야.” 조던이 말했어요. “우리가 같은 날 침례를 받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도 같이 할래?”

“좋아.” 제이크가 대답했어요. “나 아직 물문경을 끝까지 읽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조던과 제이크는 그날부터 매일 학교에서 서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너 어디까지 읽었어?”

“야곱서 끝부분. 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더는 직접 물어볼 필요도 없어졌죠. 서로 얼굴만 쳐다봐도 무엇을 물어보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내 생각에는 우리가 침례받기 전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조던이 말했어요.

마침내 두 친구가 침례를 받는 날이 되었어요.

“난 어젯밤에 다 읽었어.” 조던이 속삭였어요.

“나도야!” 제이크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정말 참된 게 맞는지 기도해 봤는데, 진짜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

조던은 웃었어요. “나도. 기도했을 때 정말 행복한 느낌이 들었어.” 조던은 커시 누나가 목표를 준 것에 감사했어요. 이제 조던은 자기 스스로 간증을 키운 거예요. ■

글쓴이는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산다.

며칠이 지나고, 커시 누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주 정도 휴식을 취하려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죠. 누나와 조던은 매일 함께 물문경을 읽었어요.

커시 누나는 선교부로 돌아가기 전에, 조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던, 내가 침례받기 전까지 물문경을 끝까지 읽는 목표를 주고 싶어.”

조던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여덟 번째 생일이 몇 달 남지 않았었죠. 아마 아주 많이 읽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좋아.” 하고 조던이 대답했어요.

“읽으면서 그것이 참된지 아닌지 기도해 볼래?” 누나가 물었어요. “모로나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성신이 우리에게 그 책이 참된지 아닌지 알려 주실 거라고 약속했거든.”

“알겠어.” 조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경 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가르쳐요.(에베소서 6:11~18: 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는 갑옷을 입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서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신앙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패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처럼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의의 가슴판

가슴판은 심장을 지켜 줘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야죠. 좋은
일을 선택하면 우리는 축복을
받아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는 병사의 몸을 보호해 주는
벨트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때, 그 지식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어요. 복음은 참되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해 줘요.



평화의 신발

신발은 발을 보호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언젠가 그분과 함께
살 수 있거든요.



영의 검

검은 잘못된 것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는 것을 도와줘요.
영은 우리에게 나쁘거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를 도와줘요. 영의
속삭임을 따르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도록 도와줘요.



여러분의 영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는 침례받을 때 어떤 성약을 맺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19~123쪽에서 발췌함.

우리들 이야기



저는 침례를 받는 동안 아주 좋은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물에 들어간 다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졌죠. 침례탕 안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침례를 받는 것을 선택해서 정말 행복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이리아나 브이, 8세, 브라질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갔어요. 저는 성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요

힐렘 에이, 5세, 페루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성전 사진을 보여 주고, 성전의 영원한 축복에 대해 간증해요.

트레저 아이, 7세, 콩고

창조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움으로 생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을 주셨고, 공기와 바다, 그리고 땅을 만드셨어요.

수많은 것들과 계절의 변화로 즐거움을 더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해, 달, 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쉬 수 있게 되셨죠.

우리는 거룩한 날에 이런 진리에 대해 많이 배워요.

시 링-야오, 10세, 타이완

에이비시는 선교사였어요

에이비시의 아버지는 에이비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에이비시가 살던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암몬이 그 도시에 와서 라모나이 왕을 가르친 후, 에이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이비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에이비시는 마침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가족이 선교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했죠. 저는 저의 2학년 담임 선생님께 몰몬경을 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그 책을 드렸을 때, 선생님은 “고맙다, 아담. 난 책 읽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 가족이 선교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 매우 기뻐요.

아담 더블유, 8세, 미국 유타 주



“에이비시와 왕비”, 말리 디, 6세, 미국 워싱턴 주

상화: 지레드 백스트랜드



이 도전 카드를 잘라서 접은 뒤 보관하세요!

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 앨마서 19장 36절을 외운다.
- 친구가 복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 초대한다.
-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을 키운다.
- 아래에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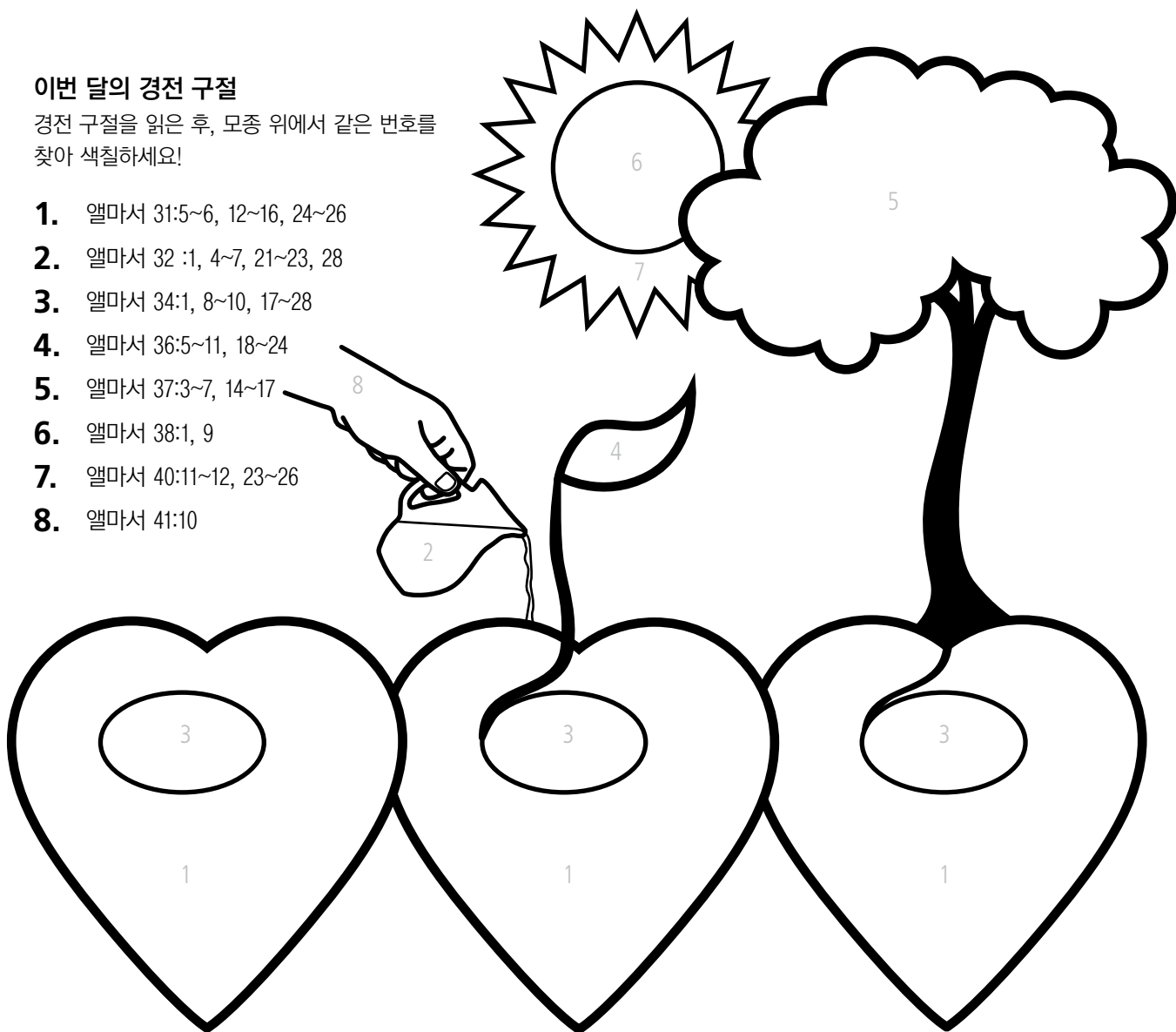
에이비시

나는 물문경을 읽을 수 있어요


이번 달의 경전 구절

경전 구절을 읽은 후, 모종 위에서 같은 번호를 찾아 색칠하세요!

1. 엘마서 31:5~6, 12~16, 24~26
2. 엘마서 32 :1, 4~7, 21~23, 28
3. 엘마서 34:1, 8~10, 17~28
4. 엘마서 36:5~11, 18~24
5. 엘마서 37:3~7, 14~17
6. 엘마서 38:1, 9
7. 엘마서 40:11~12, 23~26
8. 엘마서 41:10



상화: 지레드 맥스틀랜드



신앙의 성장

앨마와 **엠**울레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들은 신앙의 씨앗을 심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죠. 엘마와 친구들은 선교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죠. 다음 호에 실릴 읽기 도전 과제도 기대하세요! ■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 엘마



엘마 이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람인들을 가르치러 갔어요. 조람인들은 한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더이상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올바른 방법을 기억하지 못했죠.

일주일에 한 번, 조람인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려고 높은 단에 올라가서 두 팔을 높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보다 자신들이 더 특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조람인들은 그 단에 올라갔을 때만 기도를 했어요. 집이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거나 그분께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죠.



엘마는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집에서나, 밭에서나, 광야에 있을 때도 기도할 수 있다고요. 엘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가르쳤어요.



우리는 엘마가 가르친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음속으로도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 주실 거예요! ■

나는 경건할 수 있어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1895~1985)
제12대 교회 회장

간증은 무엇이며, 왜,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가?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마다 그것은 더
강화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은 베드로가
지냈던 것과 똑같은 계시를 지닐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6:13~17 참조)
그 계시는 간증, 즉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속주라는 지식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확신을 지닐 수가 있으며, 그가
이 간증을 얻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연구만을 통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구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며, 그런 다음에야
계시가 찾아오게 됩니다. ...

여러분이 영을 지니기만 한다면 간증
모임은 한 달 중 [교회에서] 갖는 모임
중 가장 좋은 모임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 모임에서 지루함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어나 간증을 하고 그 모임이
한 달 중 가장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곳에
앉아서 문법적 오류를 세고, 말을 잘
못 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면, 지루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루함
때문에 주님의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들은 매달
성전에서 모든 총관리 직원들과
만납니다. 그들은 간증을 하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합니다. 총관리
직원들에게 왜 간증 모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간증 모임이 필요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간증을
하지 않고 석 달, 여섯 달, 아홉 달, 열두
달을 지내면서도 계속해서 간증의 충분한
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량한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독창성
없는 표현을 쓰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며
핵심적인 것이 아니라 주변 것들을
말함으로써 간증을 실제로 피하려고
합니다. 간증할 때 독창성이 없는 것에
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회장은
간증을 할 때,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신성한
대표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모두가 같은
내용을 전합니다. 그것이 간증입니다. ...

간증은 혼계가 아닙니다. 간증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혼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행담이
아닙니다. 자신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에만
전념한다면 1분 동안, 또는 2분이나
4분 동안, 아니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간증이라는 방법을 통해 전할 수 있는
내용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업을 정말로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일을 할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기쁘니까?

여러분이 금식 모임에 그냥 앉아서
여러분을 위한 축복을 잃어 가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은
간증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과거에 간증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다른 회원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 해.” 여러분,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하는 데 일 분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을 갖고 그 간증을 키우고
증대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할
때마다 그것은 더 강화됩니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 제7장
“개인적인 간증”에서 발췌함.

통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향해 품으신 사랑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려면 부모의 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한 영혼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모든 자녀에게 느끼시는 사랑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구주의 사랑과 염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을 위로하라는 성약의 의무를 절대 온전히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데일 지 렌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눈으로”,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4쪽.

이번 호에서

청년 성인



안식일의 승리자들

50쪽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지 아니면 라이벌 팀과 대결하여 전국 럭비 챔피언에 도전할 것인지,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국, 우리는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큰 승리를 얻었다.

청소년

선교사로서 가장 힘든 부분

52쪽

선교 사업 준비란 단순히 경전을 공부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거기에는 동반자와 잘 지내는 법, 거절을 감내하는 법,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아이스크림으로 때워서 안 된다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어린이



조던의 공부 친구

68쪽

조던은 며칠 동안 누나의 물문경 공부 친구가 되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누나가 다시 선교부로 돌아갔어요. 조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